

2022 통합 Conference 【한국인의 기원과 동아시아 고대문화】  
古漢字와 동아시아 문명

---

【제4발표】 서주시기 胡國의 역사와 지역정치체

▶ 김정열(송실대)

【제5발표】 商나라 甲骨文 자료에 보이는  
'土'와 '天' 고찰

▶ 조용준(중국인민대)

【제6발표】 五方 체계로 본 五獸의 기원

▶ 박성우(홍익재단)

---



## 4 서주시기 胡國의 역사와 지역정치체

김정열(승실대)

### 목 차

1. 머리말
2. 新出資料의 啓示
3. 서주시기 胡國史의 재건
4. 서주왕조와 지역정치체
5. 맺음말

### 1. 머리말

서주시기 금문에는 지금에는 사용하지 않는 ‘𠂔’ 자가 있다. 이 글자는 인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고 지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唐蘭은 이 글자가 현재 통용되는 ‘胡’ 자라는 것을 입증했다.<sup>1)</sup>(아래에서는 ‘𠂔’자를 ‘胡’자로 표기한다.) 이 ‘胡’는 『春秋』 經·傳 등 전래문헌에 列國의 하나로 등장한다. 그러나 춘추시기 胡國 관련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주시기에도 胡國에 관련된 기록은 매우 적다. 게다가 이들 자료의 내용 역시 일관된 맥락을 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胡國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胡國에 대한 연구는 춘추시기의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그 지리적 위치를 비정하거나 또는 그 지배층의 族姓이 무엇인지 등의, 이를테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최근 학계에 보고된 몇 편의 서주시기 金文을 통해,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서주시기 호국의 역사를

1) 唐蘭, 「周王𠂔钟考」, 『唐蘭先生金文論集』, 北京:紫禁城出版社, 1995, p.41.

연구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주로 서주시기 금문에 나타나는 호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서주왕조와 지역정치체의 관계, 나아가서는 지역정치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서주시기로 국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후대의 관련 자료도 참고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 2. 新出資料의 啓示

근래, 李學勤은 서주시기 ‘胡’에 관련된 두 편의 금문자료를 학계에 보고했다. 그 하나는 胡應姬鼎(銘圖續 0221)이고, 다른 하나는 胡國方鼎(銘圖續 0213, 이 방정의 명칭은 ‘伯麥方鼎’이라 해야 옳다. 아래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한다.)이다. 물론 이 두 편의 금문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출자료이다.<sup>2)</sup>

먼저, 호응희정(그림1)은 출토 지점과 출토 시간이 분명하지 않다. 손잡이가 우뚝 솟아 있으며 3개의 가는 柱足 위에 깊이 얇은 용기부가 올라간 圓鼎으로, 하복부가 불룩하고 바닥은 거의 편평하다. 용기부에 별다른 장식은 없고, 頸部에 弦文 2줄이 장식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원정은 王世民, 陳公柔, 張長壽 등이 함께 저술한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에서 IV형3식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대체로 康王부터 共王 전후까지 유행했다.<sup>3)</sup> 원정의 內壁에 6行 36字의 명문이 주조되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考釋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문자 해독에 대해서는 이들 간에 큰 異見은 보이지 않는다.<sup>4)</sup> 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昭王께서 楚荊을 정벌하였을 때, 胡應姬가 王을 알현하였다. 그 말이 아름답으므로[辭皇] 貝 10朋과 玄布 둘을 하사하셨다. 乙은 王의 賞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嫡君과 公叔乙을 제사하기 위한 祭器를 만든다.

2) 李學勤, 「胡應姬鼎試釋」,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6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pp.109-111; 「胡應姬鼎再釋」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第70卷 第4期, 2017, pp.5-6; 「試說新出現的胡國方鼎」, 『江漢考古』, 2015年 第6期, pp.69-70.

3) 王世民 등,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1999, pp.29-31.

4) 위에 인용한 李學勤의 글 2편 이외에 黃錦前, 「新刊兩件胡國銅器讀釋」, 『出土文獻』第10輯, 上海: 中西書局, 2017, pp.37-46; 曹錦炎, 「胡唐姬鼎銘文小考」, 『披沙揀金-新出青銅器銘文論集』, 杭州: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9, pp.9-14.

명문 가운데 ‘辭皇’이 무슨 뜻인지, 명문에 등장하는 胡應姬, 乙, 公叔乙 등 3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등 몇몇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다. 다만 명문의 전체 내용은 소왕이 楚를 정벌했을 때 胡應姬가 昭王을 알현했던 것과 이 원정을 제작하게 된 경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소왕의 남정은 『古本竹書紀年』에서 그에 관련된 전승을 볼 수 있고,<sup>5)</sup> 금문에서도 관련 기록을 적잖이 찾을 수 있다. 명문 중의 ‘昭王’이라는 호칭이 生稱인지 아니면 諡號인지는 이 원정의 제작 연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따른다 해도, 이 원정의 제작 시점은 분명히 昭王南征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胡應姬鼎에서 볼 수 있는 기형의 특징과 모순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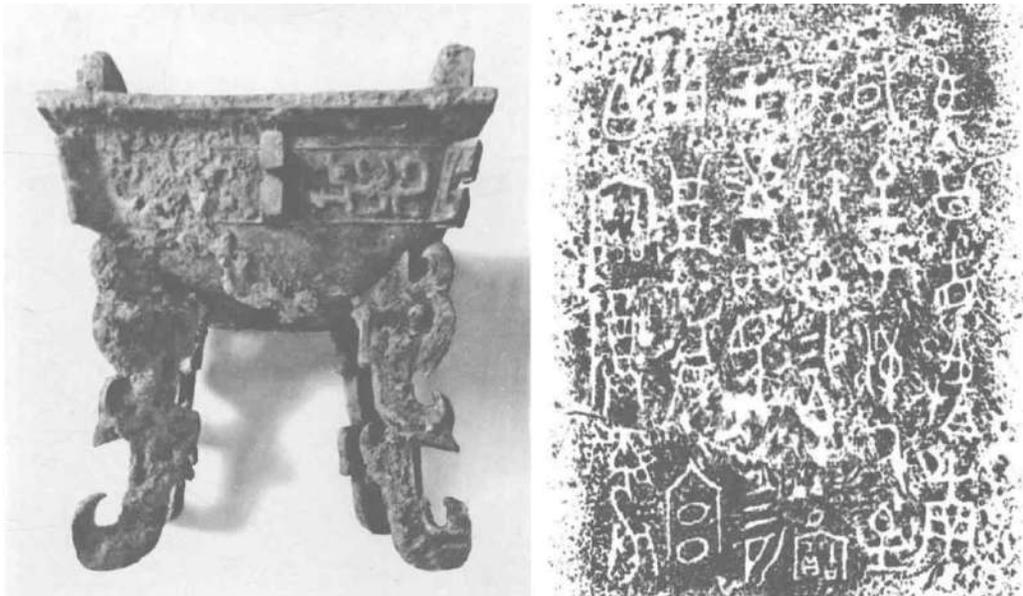
<그림 1> 胡應姬鼎과 그 명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또 다른, 그리고 중요한 하나는 ‘胡應姬’의 ‘應’자에 관한 것이다. 처음 李學勤은 이 글자를 ‘應’이라 해독했고, 黃錦前도 이에 동의했다. 반명 曹錦炎은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글자를 ‘旻’이라

5) 方诗铭·王修龄, 『古本竹书纪年辑证』, 上海:上海古籍出版社, p.45. “周昭王十六年, 伐楚荆, 涉汉, 遇大兕.”

해독하고, ‘唐’이라 읽었다. 지금 胡應姬鼎의 명문은 탁본이 유전되지 않고 사진만 볼 수 있으므로 그 字迹에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역시 ‘應’이라 읽는 것이 타당하다. 曹錦炎이 말한 바와 같이 ‘虜’자는 ‘放’과 ‘易’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唐’자와 通假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자는 지금까지 서주시기 금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後起字일 뿐 아니라, 사진에 보이는 글자의 형태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 ‘胡應姬’는 胡國에出嫁한 應侯家の 女息을 의미한다.<sup>6)</sup> 서주시기 應侯는 姬姓의 제후로 지금의 河南省 平頂山市 부근에 봉건되었다.

‘胡應姬’가 應侯의 딸이라면 그의 남편이 된 사람은 적어도 胡國의 군주이거나 그 근친이었을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호국에는 ‘伯’ 또는 ‘侯’를 칭하는 군주가 있었다. 昭王南征 때에 胡應姬가 昭王을 알현한 것은, 南征 과정에서 胡國이 모종의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지역정치체를 按撫하려는 昭王의 의도가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胡應姬鼎의 명문만으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막론하고, 昭王은 이를 통해 胡國과 유대관계를 맺거나 그것을 공고히 하려 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림2> 伯參方鼎과 그 명문

6) 河南省 平頂山市 滎陽鎮에서 발견된 西周 應國墓地를 통해 應國이 이 일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平頂山市文物管理局 編, 『平頂山應國墓地』 I 下, 鄭州: 大象出版社, 2012, pp.871-872.

다음, 伯參方鼎(그림2) 역시 그 내력이 분명하지 않다. 깊이 얇은 장방형 몸통과 그 위에 부착된 크지 않은 손잡이 그리고 아래에 부착된 4개의 鳳鳥形 扁足으로 구성된 方鼎이다. 구연부 아래에 바탕 문양이 없는 상태로 鳥喙夔文이 장식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방정은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에서 분류한 I형5식에 속하는 것으로 서주 전기에 유행하였다.<sup>7)</sup> 黃錦前의 견해에 따르면, 伯參方鼎은 成王期の 유물이다.<sup>8)</sup> 이 方鼎에는 아래와 같은 6행 31자의 명문이 주조되어 있다.

公께서 순수[省]하시어 南國으로 가셨다. 漢에 이르셨다. 胡에 도착하여  
 공께서는 伯參에게 寶玉 5品과 말[馬] 4필을 주셨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宮伯의 보배로운 제기를 만든다.

‘省’은 巡狩 혹은 巡撫의 뜻이다. 명문에는 순수에 나선 ‘公’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李學勤이 말한 것처럼, 서주 초기에 ‘南國’의 개발과 연관된 인물은 召公奭이고, 성왕기의 太保玉戈에도 소공이 ‘省南國’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명문 중의 ‘公’은 召公일 가능성이 높다.<sup>9)</sup> 서주시기의 ‘南國’은 成周 이남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어휘인데, 여기에는 대체로 淮水 유역, 南陽盆地, 隨棗走廊 및 江淮平原 일대가 포함된다.<sup>10)</sup> 伯參方鼎 명문의 내용은 남국을 순수한 ‘公’이 漢水 일대를 거쳐 胡에 도착했을 때 伯參를 만나고, 그에게 寶玉 5品과 말 4필 등을 주었다는 것이다.

명문에서 말하는 伯參가 받은 賞賜, 즉 ‘寶玉 5品과 말 4필’은 應侯見工簋乙(銘圖 05232)의 “옥 5穀, 말 4필, 화살 3000개” 그리고 噩侯鼎(集成 2810)의 “옥 5穀, 말 4필, 화살 5묶음”에서도 볼 수 있다. 전자는 懿孝期에 周王이 南夷 정벌에 공로를 세운 應侯見工에게 베푼 饗禮 때에, 후자는 孝夷期 전후에 周王이 南征에서 돌아오는 길에 噩侯를 방문하여 향례를 하사할 때의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左傳』 莊公 18년(전 676)에는 虢公과 晉侯가 함께 입조했을 때 왕이 이들에게 향례를 베풀고 玉 5珏과 말 4필을 하사한 사례도 있다.<sup>11)</sup> 伯參方鼎의 명문을 통해서도 伯參가 召公으로부터 이와 같은 賞賜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아마도 제후에게 베푼 향례의 일환으로서 거행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 同 (3), pp.16-19.

8) 同 (3) 黃錦前, 「新刊两件胡国铜器读释」, p.42.

9) 同 (2) 李學勤, 「试说新出现的胡国方鼎」, pp.69-70.

10) 朱凤瀚, 「论西周时期的“南国”」, 『历史研究』2013年 第4期, pp.7-12.

11) 『左传』 庄公 18年. “虢公晉侯朝王, 王飨礼, 命之宥, 皆賜玉五穀馬三四, 非礼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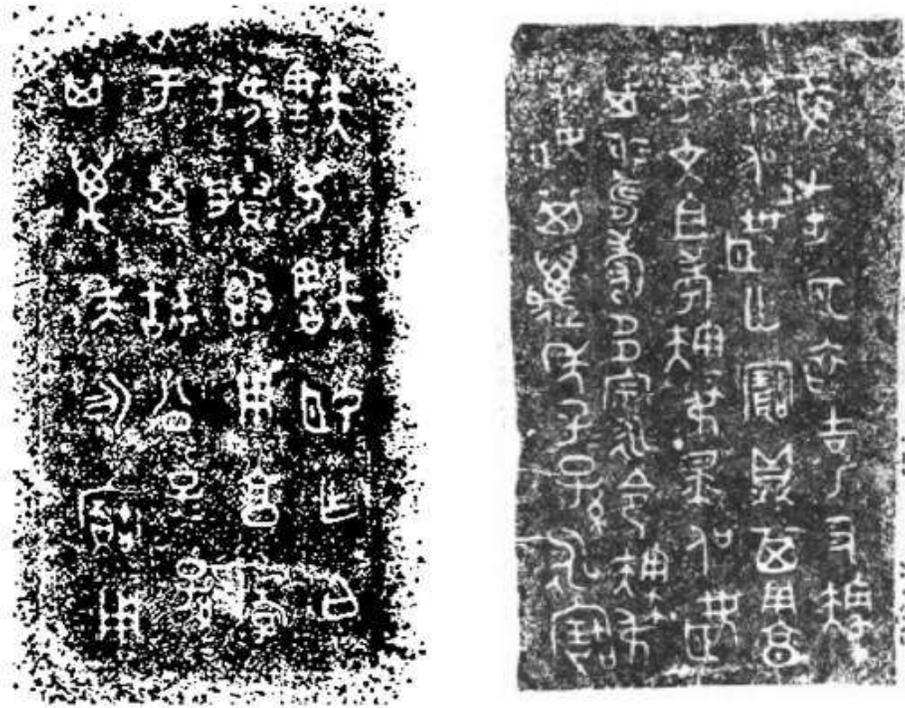
특히 周王이 향례를 베푼 배경에 주목하면, 噩侯는 南淮夷와 東夷의 실질적인 영수였고, 虢과 緡은 춘추 초기 가장 실력 있는 제후였다. 그렇다면 周王이 주관하는 향례와 이때에 사여된 옥과 말 등의 특정 물품은 아마도 특히 유력한 제후를 대상으로 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伯蓼가 ‘侯’를 칭하였는지, 方鼎의 명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伯蓼는 胡國의 영수였고, 아래에서 말하듯이, 穆王期の 금문에는 ‘胡侯’가 출현하기 때문에 成王期の 伯蓼도 유력한 ‘侯’의 하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胡應姬가 여성의 신분으로서 周王을 알현하고, 그에게서 포상을 받은 일이나, 胡侯家와 應侯家가 통혼한 일 등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만 비로소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서주시기 胡國史의 재건

1978년 陝西省 武功縣 任北村 교장갱에서 胡叔姬簋 3점이 출토되었다. (集成 4065·1) 이 3점의 궤는 모두 뚜껑이 있었다. 같은 교장갱에서는 이외에도 器身이 없는 궤의 뚜껑 3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교장갱에서 출토된 簋와 簋蓋 에는 모두 4행 26자의 동일한 명문이 주조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胡叔과 胡姬가 출가하는 여식 ‘伯媿’를 위하여 혼수품[媿器]을 만드니, 이것으로 “姑公에게 享孝”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sup>12)</sup>(그림3, 좌) 이 명문에 보이는 여식의 이름인 ‘伯媿’는 ‘輩行+族姓’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여성의 족성은 媿이므로, 그의 아버지인 ‘胡叔’의 族姓 또한 ‘媿’인 것을 알 수 있다. 『左傳』 襄公 31년(전 542)에는 魯 襄公이 사망한 이후 胡女인 敬歸의 아들 子野를 세우고, 子野가 곧 사망하자 다시 경귀의 동생 齊歸의 아들 公子稠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한 杜預의 주석은 “胡는 歸姓의 國이다. 敬歸는 양공의 첩이다”라고 되어 있다. 先學은 춘추시기 호국의 국성인 ‘歸’는 胡叔簋의 ‘媿’와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sup>13)</sup> 이상의 자료를 통해 서주시기에 호국은 媿姓을 칭하였으며, 이것이 춘추시기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2) 卢连成·罗英杰, 「陝西武功县出土楚簋诸器」, 『考古』 1981年 第2期, pp.128-133. “胡叔胡姬作伯媿媿簋, 用享孝于其姑公, 子子孙孙其万年永宝用.”

13) 李学勤, 「从新出青铜器看长江下游文化的发展」, 『文物』 1980年 第8期, p.37; 徐少华, 『周代南土历史地理与文化』,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1994, p.213.



<그림 3> 胡叔胡姬簋[左]와 胡叔信姬鼎[右]

胡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2가지의 학설이 있다. 『漢書』地理志에 “汝南郡汝陰은 본래 胡子國”이라 하는 것이 그 하나인데, 이곳은 현재 安徽省 阜陽市에 해당한다. 한편 『史記』楚世家에 楚 昭王 20년(전 482) “胡를 멸하였다.”는 기사에 달린 『史記正義』의 주석은 『括地志』를 인용하여 “옛 胡城은 豫州 鄆城縣의 경계에 있다”고 하여 그와는 다른 곳을 지목한다. ‘鄆城’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주시기 胡國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1975년 陝西省 扶風縣 莊白村 西周墓에서 출토된 戎諸器이다.<sup>14)</sup> 그 가운데 戎簋(원보고에는 ‘I 式簋’로 되어 있다.)는 공인된 穆王期의 標準器로, 여기에는 “유월 초길 을유일, 魯師에 있다. 戎이 魯를 공격하였으므로, 戎이 有司와 師氏를 거느리고 鄆戎을 獸林에서 쫓아내고 胡에서 戎과 싸웠다”는 명문이 있다. 이 명문에서 戎이 요격한 鄆戎은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戎鼎(원보고에는 ‘II 式鼎’으로 칭한다.)을 참고하면 바로 淮戎이며, 서주시기 금문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淮夷이다.<sup>15)</sup> 戎簋의 명문

14) 罗西章 등, 「陝西扶風出土伯戎諸器」, 『文物』 1976年 第6期, pp.51-60.

을 통해, 穆王 모년 6월, 虢이 이끄는 군대가 淮夷에 대한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한 전장이 된 곳이 바로 ‘胡’와 ‘馘林’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胡는 馘林에 인접한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裘錫圭의 연구에 따르면, 馘林은 『左傳』 成公 15년(전 576)에 언급된 馘林으로, 그 위치는 許國의 도성인 葉 부근이다.<sup>15)</sup> 이곳은 현재의 河南省 葉縣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주시기 胡國의 위치는 鄆城 부근으로 비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서주왕조와 호국이 관계를 맺은 시간은 늦어도 서주 전기로 추정된다. 陝西省 岐山縣 鳳雛村 甲組建築 유적 77QF11에서 출토된 서주시기 갑골 H11:232에는 “가서 胡夷를 정벌할까요?”라는 卜辭가 있다.<sup>17)</sup> 이 간단한 복사의 내용만으로는 胡夷를 정벌하려 했던 이유를 알 수 없다. 周原 西周甲骨의 상한선은 克商 이전까지 올라가고, 하한선은 서주 초기이다. 그러므로 이 복사는 克商을 전후한 어떤 시점에 서주왕조와 호국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때의 호국이 鄆城 부근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胡應姬鼎과 伯參方鼎 명문에 서주왕조의 남방 경영 과정에서 호국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늦어도 서주 전기에 호국이 현재의 鄆城 부근에 위치하면서 현지의 유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伯參方鼎이 보여주는 것처럼, ‘公’이 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호국과 서주왕조가 이미 긴장관계를 벗어나 우호적인 상태에 돌입해 있었다.

榮仲方鼎(銘圖 02413, 그림4)은 成王期 이래의 우호관계가 서주 중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장방형 몸통의 방정으로, 사면과 사각에 平直한 扉稜이 있을 뿐, 아무런 장식 문양도 없다. 이런 유형의 방정은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에서 I형3식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그 형태는 1986년 張家坡 西周墓地 M284에서 출토한 豐大母方鼎(咸方鼎)과 가깝다.<sup>18)</sup> 학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방정이 대체로 서주 전기와 중기의 과도기, 즉 昭穆期에 유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방정의 몸통 內壁에는 다음과 같은 10행 48자의 명문이 있다.

15) 同 (13) 李學勤, pp.36-37.

16) 裘錫圭, 「說馘的两个地名-“馘林”和“胡”」, 『裘錫圭學術文集』三,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p.36.

17) 陳全方, 『周原與周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pp.131-132頁. 마지막 글자는 字跡이 분명하지 않으나 우선 陳全方의 의견을 따른다.

18) 同 (3), pp.15-16.

왕이 榮仲의 宮廟를 만들었다. 12월 生霸 庚寅 길일에 子가 영중을 축하하여 瑒瓚 하나, 太牢의 희생을 증정하였다. 己巳일, 영중이 芮伯, 胡侯, 子를 초청했다. (영중이) 子에게 白金 1鈞을 주었으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父丁의 제기를 만든다. 史.

이 방정이 발견된 이후, 그 명문의 내용에 주목한 몇몇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했다.<sup>19)</sup> 陳絜에 의하면, 이 명문의 大義는 다음과 같다. 周王이 榮仲을 위해 宗廟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子’라는 인물이 제사용품으로 영중에게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39일이 지난 다음, 영중은 芮伯, 胡侯와 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子’에게 백금(주석) 1鈞을 하사했다. 이로 인해 ‘자’는 父丁을 제사하는 데 사용할 方鼎을 주조하여 그것을 기념했다. 명문 중의 영중과 자의 신분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본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연회에 초청된 인물 가운데 胡侯가 포함된 것이다. 영중은 서주시기의 世族 가운데 하나인 榮氏의 일가일 것이다.<sup>20)</sup> 서주시기의 금문에는 ‘榮子’, ‘榮伯’이 여러 차례 출현하지만 ‘영중’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왕이 그를 위해 종묘를 지어준 것을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그 역시 당대의 顯貴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명문에 보이는 연회의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서주 전기 榮氏의 宗主人 ‘榮子’의 유물이 洛陽과 그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1965년 洛陽 北窯 西周墓地 M299(서주 중기묘)에서 ‘榮仲爵’ 1점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영씨 일족은 서주 전기와 중기의 과도기 즈음까지 낙양(成周)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1)</sup> 그렇다면 영중이 베푼 연회의 장소는 成周였을 가능성이 크다.

19) 李学勤, 「试论新发现的方鼎和荣仲方鼎」, 『文物』 2005年 第9期. pp.62-69; 何景成, 「关于《荣仲方鼎》的一点看法」, 『中国历史文物』 2006年 第6期, pp.63-66; 冯时, 「坂方鼎、荣仲方鼎及相关问题」, 『考古』 2006年 第8期, pp.69-73; 陈絜, 「浅谈荣仲方鼎的定名及其相关问题」, 『中国历史文物』 2008年 第2期, pp.61-68.

20) 韩巍, 『西周金文世族研究』, 北京大学博士论文, 2007, pp.104-115.

21) 同(19), 陈絜, p.66.



<그림4> 榮仲方鼎과 그 명문

胡侯는 자신의 居邑을 떠나 성주에 와서 周王의 근신인 榮仲이 베푼 연회에 참여하였다. 이 사실은 서주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胡侯가 서주왕조의 지배하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왕조의 핵심지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목왕기에 서주왕조가 淮夷와의 전쟁에 돌입하였을 때 호국이 왕조의 기지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목왕기의 斲鼎(集成 2721)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1월, 師離父가 道를 시찰하였다[省]. 胡에 이르렀다. 斲가 隨從하였다. 師離父가 斲를 蔑曆하고 동[金]을 하사하였으므로 師離父의 은총을 널리 알려 보배로운 鼎을 만든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迺鬲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유월 既死霸 丙寅일, 師離父가 古白에서 수자리를 쳤다[戌]. 迺가 隨從하였다. 師離父가 肩하였다. 迺를 胡侯에게 사자로 보냈다. 胡侯가 迺를 蔑曆하고 迺에게 銅을 하사하였으므로 旅鬲을 만든다.

전자는 師離父와 斲가 王命을 받아 胡로 향하는 도로를 巡狩한 일이, 후자에는 迺가 사신이 되어 胡侯에게 파견된 일이 전해진다. 斲와 迺는 同音字이다. 게다가 위에 기록된 두 사건은 모두 胡侯와 관련이 있고, 이때에 斲와 迺의 상급자로 등장하는 인물 역시 모두 師離父이다. 따라서 斲와 迺는 동일인이며, 우정과 우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漕가 호후에게 파견된 것은, 그가 사옹보의 속하에서 古師에 주둔했을 때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泉臧卣(集成 5419), 臧方鼎(集成 2824), 秣卣(集成 5411), 既尊(集成 6008) 등에도 두루 언급되어 있다. 이 중에서 泉臧卣는 이 사건의 경과를 이렇게 말한다.

왕께서 臧에게 일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아. 淮夷가 감히 內國을 공격하였다. 너는 成周師氏를 거느리고 古師에 수자리를 서도록 하라.” 伯雎父는 泉을 蔑歷하고 貝 10봉을 하사했다. 泉은 질하고 머리를 조아려, 伯(雎父)의 은총을 널리 알린다. 이로써 文考인 乙公의 보배로운 제기를 만든다.

泉臧卣의 伯雎父는 우정과 우언의 師雎父이므로, 위의 우정과 우언에 기록된 사건은 아마도 淮夷의 ‘內國’ 침입으로 야기된 서주왕조의 대응일 것이다. 穆王은 師(伯)雎父로 하여금 泉臧, 秣, 斲(遇), 既 등을 이끌고 古師에 주둔하면서 淮夷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고사에 주둔한 왕조의 직할군은 회이를 방어하기 위해 호국과의 연계도로를 확보하고 호후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호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호국은 서주왕조와 회이의 전쟁 중에서 왕조의 교두보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에 언급한 臧簠에서 주요한 전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胡와 棫林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전쟁에서 胡侯가 담당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昭王期에 진입한 이후 서주왕조는 남방으로의 확장을 시도했다. 최초의 경략 목표는 隨棗走廊에서 江漢平原 일대에 위치한 荊楚였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왕조의 경략은 淮水 일대의 淮夷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회이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왕조의 진출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다. 목왕기 이후부터 厲宣期까지 서주왕조와 회이의 공방은 지루하게 반복되었다. 목왕기에 들어 회이에 대한 경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호국은 서주왕조의 천하 경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담당했다.

목왕기 회이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름을 드러낸 이후, 호국에 관련된 자료는 수량도 적고 그 내용도 자잘하다. 1973년 陝西省 藍田縣에서 출토된 서주 후기의 胡叔信姬鼎(集成 2767)은 胡叔과 信姬가 文祖考를 제사하기 위해 주조한 것인데,<sup>22)</sup>(그림3, 우) 그 명문을 통해서 胡叔과 姬姓家の 여성인

22) 尙志儒·樊維岳·吳梓林, 「陝西藍田縣出土胡叔鼎」, 『文物』 1976年 第1期, p.94. “佳(唯)口(王)正月初吉乙丑, 胡叔伯(信)姬作宝鼎, 其用享于文且(祖)考, 胡叔眾伯(信)姬其易

信姬가 혼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78년 任北村에서 발견된, ‘伯媿’의 혼수품으로 제작된 胡叔胡姬簋 역시 서주 후기의 유물이다. 이 명문을 통해서도 호숙과 희성가의 여성이 혼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胡叔信姬鼎의 호숙과 胡叔胡姬簋의 호숙은 그 배우자의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은 아니다. 關中 지역에서 복수의 胡叔과 姬姓의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 胡國의 몇몇 公室 성원이 희성과 통혼하고, 서주왕조의 핵심지역에 거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위의 호숙(들)이 원래부터 관중에 거주한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혼인을 통해 새로 관중에 진입한 자들이었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任北村에서 胡叔胡姬簋가 출토되었을 때 함께 발견된 同銘의 器蓋 3점은 본래의 짝이 아닌 芮叔簋 위에 부착되어 있었고, 같은 교장갱에서는 芮叔父簋(集成 4065·2) 3점도 출토되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伯媿’의 모친 ‘胡姬’는 아마도 芮國 출신이었을 것이다. 역시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榮仲方鼎에서 영중이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芮伯이 胡侯가 함께 등장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胡國과 芮國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위의 자료를 통하여, 늦어도 昭穆期 이후 성립된 호국과 예국의 관계는 서주 후기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서주 후기까지 서주왕조와 호국의 우호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며, 호숙과 희성가의 혼인 역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한 추정 이외에 서주시기 호국의 역사를 더욱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전래문헌과 금문 기록에서 모두 찾아볼 수 없다. 오직 『韓非子』 說難에 전하는 한 편의 이야기<sup>23)</sup>를 통해 서주왕조가 몰락하고 동주왕조가 시작될 무렵까지 호국이 원래의 장소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鄭人이 胡를 습격하여 그것을 取하였다.”는 것으로 끝난다. 李峰의 연구에 의하면, 平王이 東遷한 이후 수년 사이에 鄭 武公이 河南省 新鄭 일대에 鄭國을 세웠다.<sup>24)</sup> 『韓非子』 說難에 전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매우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이야기로서, 그 내용 모두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錫) 寿老多宗永令(命), 胡叔伯(信) 年子子孙永保.”

23) 『韓非子』 說難. “昔者鄭武公欲伐胡, 故先以其女妻胡君以娛其意, 因問於群臣, 吾欲用兵, 誰可伐者. 大夫關其思對曰, 胡可伐, 武公怒而戮之, 曰胡兄弟之國也, 子言伐之何也. 胡君聞之, 以鄭爲親己, 遂不備鄭, 鄭人襲胡, 取之.”

24) 李峰, 「西周金文中的郑地和郑国东迁」, 『文物』 2006年 第9期, pp. 70-78.

이야기는 적어도 당시 鄭國과 胡國이 서로 인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국의 故地인 鄆城은 新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동주왕실이 성립될 무렵, 일찍부터 이 지역에 위치해 온 호국과 새로 진입해 온 鄭國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위에 인용한 『韓非子』 說難에서 “取하였다.”고 한 것은 호국의 땅을 탈취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호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정국이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호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국세를 발휘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호국이 진짜 멸망한 것은 기원전 482년의 일이다.

#### 4. 서주왕조와 지역정치체

이상에서 금문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서주시기 胡國 역사의 몇몇 장면을 간단하게 소묘해 보았다. 물론 이들 간단한 기록에 의존해서 서주시기 호국 역사의 전모를 복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호국은 늦어도 成王期에 서주왕조의 한 侯國이 되어 왕조에 복속하고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서주 후기까지 죽 이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호국에 관련된 금문 자료에는 서주시기 지역정치체에 관한 몇몇 중요한 정보 또한 담겨 있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특히 2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4.1. 혼인 네트워크의 기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胡應姬鼎의 ‘胡應姬’이다. 이 이름 안에는 그녀가 ‘胡國으로 시집온 應侯家の 여식’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것을 통해 호국과 그에 인접해 위치한 응국이 통혼한 것을 알 수 있다. 응국은 姬姓 제후국의 하나로서 지금의 河南省 平頂山市 경내에 위치하여 鄆城의 胡國과 서로 인접해 있었다. 異姓의 지역정치체와 姬姓의 제후국이 통혼한 사례는 山西省 남부에 위치한 邰國에서도 볼 수 있다. 山西省 北趙 晉侯墓地 M91에서 출토된 伯喜父簋에는 아래의 명문이 있다.

정월 초길 丁亥일, 伯喜父가 처음으로 邰母를 제사하기 위한 寶簋를 만든다. 밤이나 낮이나 이것으로 王宗에서 祭享할 것이니 子子孫孫 영원히 사용

## 하라. 25)

명문에 따르면, 이 유물은 백희보가 자신의 부인인 ‘봉모’를 위해 제작한 것이다. 서주 중기의 棚仲鼎(集成 2462)에 의하면 棚國의 國姓은 ‘媿’이다. 근래 山西省 運城 橫水鎮에서 棚國墓地가 발견되었다.<sup>26)</sup> 이곳은 山西省 曲沃의 北趙 晉侯墓地에 인접해 있다. 棚國의 사례 역시 이성 지역정치체와 인접한 회성 제후국이 혼인관계를 맺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성 지역정치체가 회성 제후국이 통혼할 때, 혼인의 대상이 된 것은 인접한 제후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山西省 翼城 大河口 霸國墓地 M1은 서주 전·중기 과도기의 패백묘인데, 이 묘에서 출토된 M276-1 銅卣에는 “燕侯旨가 姑妹의 보배로운 제기를 만든다.”는 명문이 있다. 같은 묘에서 출토된 銅爵 1점에는 “旨가 父辛의 爵을 만든다. 世.”라는 명문이 보인다.<sup>27)</sup> 후자의 ‘旨’는 전자의 ‘燕侯旨’일 것이다. 연후지가 제작한 동기가 패백묘에서 출토된 것은 그 姑妹가 패백과 혼인했기 때문이다. 燕國은 현재의 北京市 琉璃河 부근에 위치한 姬姓의 제후국이다.

지방정치체의 통혼 대상은 회성의 제후국을 넘어 서주 핵심지역의 귀족, 심지어는 왕실까지 확장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胡叔胡姬簋와 胡叔信姬鼎에서도 胡叔家가, 芮國을 포함한 姬姓 종족과 통혼한 것을 볼 수 있다. 晉國과 통혼한 棚國에서도 역시 동일한 상황을 볼 수 있다. 棚國과 핵심지역의 畢公家가 통혼한 사실은 橫水鎮 棚國墓地 M1에서 출토된 鼎, 簋, 盤 등의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M1:212 鼎에는 “棚伯이 畢姬의 보배로운 旅鼎을 만든다.”는 명문이 있다. 文中에서 畢姬는 畢 출신의 회성 여성을 의미한다. 『左傳』 僖公 24년(전 636)에는 畢이 文王의 후예로서 주 왕실과 同姓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M1:205 銅簋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23년 初吉 戊戌일, 益公이 棚伯 甬의 공을 치하하였다[蔑曆]. (益公이) 右하여 告하였다. 金車, 旅를 수여하였다. 甬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公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를 제사하기 위한 祭器를 만든다. 甬은 앞으

25) 李伯謙, 「晉伯卣及其相關問題」, 『文明探源與三代考古論集』, 文物出版社, 2011, pp.360-366.

26) 山西省考古研究所等,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 『考古』, 2006年 第7期, pp.16-21; 「山西絳縣橫水西周墓發掘簡報」, 『文物』, 2006年 第8期, pp.4-18.

27) 山西省考古研究所大河口墓地聯合考古隊, 「山西翼城縣大河口西周墓地」, 『考古』, 2011年 第7期, pp.9-18.

로 만년토록 영원히 보배롭게 사용하여 祭享하라.

위의 명문에서 益公이 侂伯을 치하하고 그에게 賞賜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益公과 侂伯 사이에 모종의 특수관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畢鮮簋(集成 4601)에 의하면 ‘益公’은 畢鮮의 皇祖이다. 따라서 그는 畢姬와 마찬가지로 畢氏 가족에 속한 사람이다. 필희는 서주시기의 顯族인데, 서주시기에는 두 곳의 畢地가 있었다. 그 하나는 豐鎬의 서남쪽으로 文王, 武王과 周公의 葬地이다. 다른 하나는 陝西省 咸陽市 이북의 ‘畢原’인데 학계에서는 보통 畢氏가 봉건된 곳으로 생각한다.<sup>28)</sup>

侂伯은 畢氏와 통혼했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도 통혼했다. 최근 보고된 侂國墓地 M2158은 서주 중기 이른 단계의 侂伯墓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甗, 盤, 盃 각 1점에는 내용이 같은 명문이 주조되어 있다. 이 가운데 盤에는 “芮伯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王姊의 甗을 만든다. 侂伯과 함께 만년토록 王의 출입에 享用하라.”는 명문이 있다. 명문을 볼 때 이들 청동예기는 ‘王姊’가 侂伯에게 시집갔을 때 芮伯이 同姓 一家로 그의 딸을 媵嫁하고 그를 위해 贈送한 媵器일 것이다. 이 명문에서 말하는 ‘王姊’는 周王의 누이이다.<sup>29)</sup> 侂伯처럼 지역정치체와 서주왕실의 통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서주 후기의 噩侯簋(集成 3928)를 통해 姑姓 噩侯와 王室이 통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서주·춘추시기 漢淮지역 諸國의 통혼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서주시기 漢淮 일대의 噩, 陳, 番, 申 등의 諸國이 왕실과 통혼했으며, 蔡國, 胡國, 許國, 柏國, 鄧國 등도 등도 일찍이 희성의 제후국 혹은 핵심지역의 귀족과 통혼했다.<sup>30)</sup> 후자 가운데 蔡國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異姓의 지역정치체이다.

이처럼 서주시기의 지역정치체는 서주왕실, 동성제후국 나아가 핵심지역의 귀족들과 광범위한 통혼관계를 맺었다. 지역정치체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보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서주왕조는 각지에서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서주왕실과 지역정치체의 영수를 포함한 각지의 지배계층 사이에 맺어진 통혼관계는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근래 陝西省 賀家村 北西區

28) 同 (20), pp.58-59.

29) 山西省考古研究所·运城市文物工作站·绛县文物局联合考古队 等, 「山西绛县横水西周墓地M2158发掘简报」, 『考古』2019年 第1期, pp.15-59.

30) 陈昭容, 「从青铜器铭文看两周汉淮地区诸国婚姻关系」,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第75本 第4分, 2004, pp.637-646.

묘지에서 출토된 昔鷄簋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전한다.<sup>31)</sup> 명문의 몇몇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sup>32)</sup> 謝乃和에 의하면 그 명문의 대의는 “서주왕실의 왕후가 昔鷄를 파견하여 姞姓의 南燕國으로 가서 왕조의 대부인 芴氏를 위해 그의 부인 芴媯을 맞이하였다. 南燕侯는 賓禮로 昔鷄에게 조개와 말을 주었으므로, 昔鷄가 왕의 은덕을 칭송하였다.”는 것이다. 昔鷄簋의 명문은 서주왕실이 南燕國과 핵심지역의 귀족 芴氏 사이의 혼인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왕실이 모든 통치계층의 혼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왕실이 앞서 언급한 胡應姬의 혼사에 개입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호국이 서주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지 통치계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혼인 네트워크 가운데 편입되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서주왕조가 회이와 전쟁을 벌였을 때 호국이 일정하게 기여한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왕조의 천하 경영에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주왕조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는 정식의 또 제도적인 시스템 이외에 혼인을 포함한 각종 인간관계의 구축 역시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 4.2. 伯과 侯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른바 ‘爵稱’의 문제이다. 『孟子』 萬章 이래로 周代の 제후에게는 5개의 서로 다른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 이른바 ‘五等爵’의 견해가 널리 상식으로 통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는 오등작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지만, 설사 오등작이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제도의 原形이 되는 어떤 제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견해가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sup>33)</sup> 이 문제를 살펴볼 때 胡國에 관련된 몇몇 금문 자료가 매우 시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본 伯蓼方鼎에는 공이 胡國에 와서 ‘伯蓼’에게 옥과 말 등을 준 사

31) 周原考古队, 「陕西宝鸡市周原遗址2014-2015年的勘察与发掘」, 『考古』 2016年 第7期, pp.31-44.

32) 黄锦前, 「岐山贺家村M11出土昔鸡簋, 卣铭文释读」, 『陕西历史博物馆馆刊』 第24辑, 西安: 三秦出版社, 2017, pp.73-77; 黄益飞, 「略论昔鸡簋铭文」, 『中国国家博物馆馆刊』, 2018年 第3期, pp.53-59; 何景成, 「新出昔鸡簋与甲骨文“害”字考释」, 『青铜器与金文』 第2辑,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9, 278-288; 谢乃和, 「近出昔鸡簋铭文及相关史实考论」, 『古代文明』, 第13卷 第2期, 2019, pp.38-45.

33) 예컨대 王世民, 「西周春秋金文中的诸侯爵称」, 『历史研究』 1983年 第3期, pp.3-17; 「西周春秋金文所见诸侯爵称的再探讨」, 『古文字与古代史』, 第3辑, 2012, pp.149-157.

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문에서 作器者의 칭호는 ‘伯蓼’이지만, 이 명문만으로 胡國의 영수가 이른바 ‘伯’이라는 ‘爵稱’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칭호에서 ‘伯’이 爵稱의 ‘伯’이 아니라 ‘伯仲叔季’의 ‘伯’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文中에서 伯蓼方鼎의 作器對象이 ‘宮伯’이고, 이 ‘宮伯’이 사후의 시호인 것을 보면 胡國의 영수가 일찍이 ‘伯’이라는 작칭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주 전·중기의 과도기 무렵에 제작된 榮仲方鼎에 호국의 영수가 ‘胡侯’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胡侯’라는 이 칭호는 榮仲方鼎과 가까운 시기에 제작된 通廟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伯蓼方鼎과 榮仲方鼎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있으므로 ‘胡伯’이 나중에 ‘胡侯’로 그 지위가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伯蓼方鼎에서 ‘公’이 胡伯에게 베푼 賞賜는 ‘侯’에 대한 의례였다. 따라서 ‘호백’이 당시에 이미 ‘侯’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서주시기의 제후가 ‘伯’과 ‘侯’를 互用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河南省 平頂山 應侯墓地 M84와 M95는 모두 서주 중기의 應侯墓인데, 이 가운데 M84에서 ‘應侯甬’ 명문이 있는 銅盨 1점이 출토되었으며,<sup>34)</sup> M95에서는 ‘應伯’ 명문이 있는 盨, 壺, 盤이 각각 1점씩 출토된 바 있다.<sup>35)</sup> ‘應伯’이라는 칭호는 최근 발견된 大河口 서주묘지 서주 후기묘 M6096에서 출토된 銅盆(M6096:21)에서도 볼 수 있다.<sup>36)</sup> 濬司徒選簠(集成 4059)의 ‘康侯’는 일반적으로 衛國위 始封者인 衛康叔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河南省 濬縣 辛村 M2는 朱鳳翰의 견해에 따르면 서주 전기의 귀족묘인데<sup>37)</sup> 이 묘에서는 ‘侯’ 銘이 있는 銅戟 7점(M2:81-87)이 출토되었다.<sup>38)</sup> 이들 자료는 모두 서주 전기 衛侯의 칭호가 ‘侯’였음을 보여주지만, 『史記』 衛康叔世家의 기록에 의하면, 衛康叔부터 6대에 걸친 衛侯가 모두 ‘伯’으로 불렸다. 뿐만 아니라 현재 湖北省 隨州 경내에 위치한 曾侯 역시 ‘侯’와 ‘伯’을 호용하였다. 張昌平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曾侯는 兩周의 교체기부터 춘추 중기까지 ‘侯’와 ‘伯’이라는 칭호를 모두 사용하였다.<sup>39)</sup> 이것은 서주 전

3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平頂山市文物管理局 编, 『平頂山应国墓地』, I 上, pp.578-599, 图266, 267.

35) 河南省文物研究所 等, 「平頂山应国墓地九十五号墓的发掘」, 『华夏考古』 1992年 第3期, pp.92-103.

36) 山西省考古研究所 等, 「山西翼城大河口西周墓地M6096发掘简报」, 『文物』 2020年 第1期, p.12, 图16.

37) 朱凤瀚, 『西周青铜器综论』中,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9, pp.1334-1351.

38) 郭宝钧, 『浚县辛村』, 北京:科学出版社, 1964, p.44.

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예컨대, 湖北省 隨州 葉家山 曾侯墓地的 서주 전기묘 M2, M27, M28, M65, M111 등에서는 모두 ‘曾侯諫’ 혹은 ‘曾侯犹’ 명문이 있는 예기가 출토되어,<sup>40)</sup> 서주 전기에 증후가 ‘侯’를 보편적인 칭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M27에서 ‘曾侯諫’ 銘의 청동 예기와 함께 출토된 伯生盃(M27:15)에는 “伯生이 제기를 만든다. 曾.(伯生作彝. 曾.)”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그 뜻은 “曾伯生이 예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曾國은 서주 전기이래 ‘伯’과 ‘侯’를 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 이외에 晉侯 역시 ‘侯’와 ‘伯’ 등 2종류의 칭호를 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覺公簋(堯公簋라 칭하기도 한다.) 명문을 통해, 晉國은 2대 燮父가 “晉의 제후가 된”(“侯于晉”) 이래 ‘晉侯’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그런데 위에 인용한 北趙 진후묘지 M91에서 출토된 伯喜父簋에는 “伯喜父가 처음으로 俎母의 寶簋를 만든다.”는 명문이 있는 반면,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다른 예기 1점에서 이 사람은 자신을 ‘晉侯喜父’라 부르고 있다.<sup>42)</sup> 이밖에 北趙 晉侯墓地的 또 다른 무덤에서는 서주 후기의 晉伯隆父鬲(銘圖 03339)이 출토된 바 있으며, 首陽齋의 所藏品 가운데도 서주 중기의 晉伯卣(銘圖續 13279)이 보인다.<sup>43)</sup>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근래에 어떤 연구자는 아직 ‘侯’의 자리를 계승하지 못한 후계자가 한시적으로 ‘伯’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sup>44)</sup> 즉 ‘伯’을 칭하던 사람이 나중에 ‘侯’의 지위를 계승한 이후 비로소 ‘侯’를 칭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모두 일종의 特例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韓巍는 위에 인용한 晉伯卣가 그 亡父를 제사하기 위해 만든 제기라고 했지만,<sup>45)</sup> 만약 부친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가 ‘侯’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한

39) 张昌平, 『曾國青銅器研究』, 北京:文物出版社, 2009, pp.348-355.

40)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等, 「湖北隨州葉家山M65發掘簡報」, 『江漢考古』 2011年 第3期, pp.3-40; 「湖北隨州葉家山西周墓地發掘簡報」, 『文物』 2011年 第11期, pp.4-60; 「湖北隨州葉家山西周墓地」, 『考古』 2012年 第7期, pp.31-52; 「隨州葉家山西周墓地第二次考古發掘的主要收穫」, 『江漢考古』 2013年 第3期, pp.3-6; 「湖北隨州葉家山M28發掘報告」, 『江漢考古』 2013年 第4期, pp3-57.

41) 朱凤瀚, 「覺公簋與唐伯侯于晉」, 『考古』 2007年 第3期, pp.64-69.

42) 北京大學考古系·山西省考古研究所, 「天馬-曲村遺址北趙晉侯墓地第五次發掘」, 『文物』 1995年 第7期, pp.4-39.

43) 首陽齋, 『首陽吉金-胡盈瑩, 范季融藏中國古代青銅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 p.92頁.

44) 同 (25).

45) 韓巍, 「新出金文與西周諸侯稱謂的再認識-以首陽齋藏器為中心的考察」, 美國芝加哥大學碩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위에 인용한 大河口 M6096:21 銅盆의 명문은 “王 2년, 王이 應伯에게 명하여 淮南夷를 정벌하게 하였다.”로 시작되는데, 왜 주왕이 應侯가 아니라 굳이 아직 계위도 하지 않은 應伯에게 정벌을 명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서주시기의 몇몇 제후들은 ‘侯’와 ‘伯’이라는 두 종류의 칭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주시기에 ‘오등작’이 존재하였으며, ‘후’와 ‘백’은 각각 동일한 체계의 서로 다른 위치를 대표하는 칭위라고 간주할 수 없다. 李峰의 연구에 따르면, ‘후’와 ‘백’은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하는 칭호이다. 그에 의하면, “侯는 서주 국가 중의 정치적 지위에 근거하여 자기의 신분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칭호이며, “伯은 종족의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입각하여 자신의 신분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칭호이다.<sup>46)</sup> 李峰의 견해를 참고하면 서주시기의 제후가 ‘후’와 ‘백’ 등 두 종류의 칭호를 병용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백’ 그 자체는 형제의 排行인 ‘伯仲叔季’에서 나온 ‘長子’라는 뜻으로, 적장자계승제 하에서 장자가 부친을 계승하여 ‘후’가 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서주시기의 제후 가운데 몇몇 ‘某伯’을 칭한 자는 종족의 적장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伯’이 상대 후기에 이미 ‘수령’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朱鳳瀚의 연구에 의하면, 商人은 非商人 족속의 수령을 ‘백’이라 불렀으며, 이 ‘백’은 이미 ‘異族群 수령의 汎稱’이 되었다.<sup>47)</sup>

주목해야 할 것은, 서주시기의 전래문헌에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尙書』 酒誥에 “그리고 外服에 있어 侯·甸·男·衛·邦伯”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글에서 ‘伯’은 排行上의 長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邦’의 수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邦伯’이라는 칭호는 서주시기의 금문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 葉家山 曾國墓地 M2에서 출토된 서주 전기의 荊子鼎(銘圖 02385)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보인다.

丁巳일, 王께서 大祐의 儀禮를 거행하셨다. 戊午일, 荊子是 공로를 賞讚받

立雅中国古文字研究中心和芝加哥艺术博物馆联合主办“二十年来新见古代中国青铜器国际研讨会”宣读论文, 2010, pp.4-5.

46) 李峰, 「论「五等爵」称的起源」, 『古文字与古代史』第3辑, 2012, pp.164-168.

47) 朱凤瀚, 「殷墟卜辞中「侯」的身分补证-兼论「侯」, 「伯」之异同」, 『古文字与古代史』第4辑, 2015, p.19.

고[蔑歷] 흰색 수소[牡] 한 마리를 희생으로 하여 敵하였다. 己未일, 王은 多邦伯에게 상을 내렸다. 荊子が 麗하여 (왕이) 秬鬯 1통과 貝 2朋을 주었으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文母乙을 제사하기 위한 제기를 만든다.<sup>48)</sup>

어떤 연구자는 명문 중의 ‘邦伯’을 ‘諸侯之長’으로 해석하였으나<sup>49)</sup> 『尙書』 酒誥의 邦伯이 侯의 뒤쪽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다.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成王期の 保卣(集成 5145) 명문에 위 荊子鼎에서 말한 大祐의 의례는 ‘四方’이 출석하는 의례로 출현한다는 점이다. 서주 중기의 癸鐘(集成 251) 가운데 “四方을 널리 소유하고 萬邦을 아울러 받으셨다.(匍有四方, 會受萬邦)”라는 대목에서 ‘四方’과 ‘萬邦’이 對舉되어 있기 때문에, 荊子鼎의 ‘多邦伯’은 ‘諸侯之長’이라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복수의) 邦伯’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방백’이 방의 수령이라면 이것은 ‘邦君’과 동일한 의미이며, 서주시기 금문에서 좀 더 널리 채용된 칭호는 ‘邦君’이었다. 방군은 五祀衛鼎五(集成 2832), 豆閉簋(集成 4276), 梁其鐘(集成 189), 靜簋(集成 4273), 義盃蓋(集成 9453) 文盨(銘圖 05664) 등 여러 금문에 보인다. 그리고 班簋(集成 4341)에 보이는 ‘邦冢君’도 같은 칭호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후’와 ‘방군’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서주 중기의 義盃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같다.

十一月 既生霸 甲申일, 王께서는 魯에 계셨다. 邦君, 諸侯, 正有司와 회합하여 大射禮를 거행하였다. 義는 蔑歷을 받았으며, 王께서 오셨을 때 貝 10朋을 하사받았다. 王의 은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배로운 祭器, 盃를 만든다. 子子孫孫 영원히 귀중하게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주 중기의 문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왕의 23년 8월, 왕께서는 士芻父로 하여금 남쪽의 邦君과 諸侯를 회집 [殷]하게 하시고, 말[馬]을 하사하셨다. 왕께서는 文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小南까지의 길을 인도하라.” 5월 初吉, 成周로 되돌아 와서 休대 용의 鬯를 만들어 왕의 은총을 널리 선양하노라.

위의 두 금문에서 ‘제후’와 ‘방군’이라는 호칭은 병렬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 칭호라는 것을 의미한

48)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等, 「湖北隨州葉家山西周墓地發掘簡報」, 『文物』, 2011年 第11期, p. 16.

49) 王健, 『西周政治地理結構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4, pp. 132-151.

다.

서주시기의 邦은 하나의 大邑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포함하는 정치적 실체로서<sup>50)</sup> 본문에서 말한 ‘지역정치체’에 해당한다. 서주시기의 지역정치체는, 특히 非周系의 異族 지역정치체의 領袖는 위에서 본 것처럼 ‘백’이라는 칭호로 널리 ‘통치자’의 신분을 표시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長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통치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근래에 알려진 ‘棚伯’, ‘霸伯’ 등과 같은 부류는 이 범주에 속하며, ‘胡伯’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胡伯’은 왜 ‘棚伯’·‘霸伯’과는 다르게 ‘伯’이라는 호칭 외에 ‘侯’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서주시기 ‘侯’의 의미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서주시기 금문 가운데 제후의 책봉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伯農鼎(集成 2816), 宜侯矢簋(集成 4320), 麥尊(集成 6015), 四十二年逯鼎(2점: 銘圖 02050, 02051), 覺公簋(銘圖 04954), 克壘(銘圖 13831), 克盃(銘圖 14789) 등 모두 6종 8점이다. 이들 금문에는 예외 없이 제후 책봉을 “侯于某(地)”라고 표현하고 있다. 文中의 ‘侯’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후’가 원래 일종의 ‘행위’였으며, 여기에서 그 의미가 ‘그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 확장되어 간 것을 의미한다.

‘侯’자의 의미에 대해 몇몇 연구자는 『說文解字』의 해석을 따라, 맨 처음에는 射禮의 ‘과녁’을 의미했다가 나중에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51)</sup>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금문에서 ‘侯’자를 동사로 사용하는 文例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甲骨文字詁林』에 따르면, ‘侯’는 ‘候’와 同字이며, ‘侯’는 후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다.<sup>52)</sup> 『說文解字』는 ‘侯’를 “관망하다.(伺望也)”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裘錫圭는 『尚書』 禹貢의 僞孔傳에 “侯는 관망한다[侯는] 뜻이다. 척후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다.”는 대목을 인용하여, “侯의 本職은 왕을 위하여 척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53)</sup> 朱鳳瀚 역시 서주시기의 侯는 “바로 상 후기 왕국의 ‘侯’와 가까운 직능을 가진 官稱으로, 邊地에 거처하면서 왕국을 지키는, 비교적 강력한 무력을 가진 무관”이라고 이해했다.<sup>54)</sup> 서주 금문에서 ‘侯’자가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

50) 赵伯雄, 『周代国家形态研究』, 长沙:湖南教育出版社, 1990, pp.49-51, 93-104.

51) 李峰, 『西周的政体-中国早期的官僚制度和国家』, 北京:三联书店, 2010, p.49, 注(4).

52) 于省吾 主编, 『甲骨文字詁林』第3册, 北京:中华书局, 1996, pp.2542-2545.

53) 裘锡圭, 「甲骨卜辞中所见的“田”“牧”“卫”等职官的研究-兼论“侯”“甸”“男”“卫”等几种诸侯的起源」, 『文史』第19辑, 北京:中华书局, 1983, pp.1-13.

하면, 두 연구자의 해석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후’가 서주왕조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胡伯’이 ‘胡侯’를 병칭한 것은 그가 지역정치체의 영수로서 서주왕조에 의해 ‘侯’로 임명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서주왕조가 그를 ‘후’로 임명한 것은 胡國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胡國은 현지에서 강대한 역량을 가진 지역정치체였기 때문일 것이다.

## 5. 맺음말

서주시기의 胡國은 지역정치체의 하나로서 서주 전기부터 서주왕조에 복종하면서 淮河 상류 유역에서 왕조의 천하 통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호국과 서주왕조의 관계는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서주왕조가 멸망하고 기존의 정치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호국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서주시기의 천하에는 많은 지역정치체가 있었다. 그들은 때로는 왕조에 복종하고 때로는 이반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하고 절멸하기도 하였다. 서주왕조는 전국 각지에 同姓과 功臣을 분봉하고, 그들을 왕조의 수족으로 삼아 천하를 통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조는 각종 정책을 통해 지역정치체를 통치체제 내에 편입시켰다. 그것은 왕조의 지배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치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여기에는 각종 표면적 정치제도 이외에 통혼관계 등을 포함하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전하는 자료만으로 서주시기 호국의 역사와 그것이 왕조에서 수행한 역할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호국은 서주왕조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河南省 남부와 湖北省 북부 일대에 위치해 있었던 噩國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噩國 역시 서주왕실과 통혼하고, 왕조의 ‘侯’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호국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었으나 서주 후기에 이르러 점차 왕조의 통치질서에서 이탈하여, 마침내는 반역의 주인공이 되었다. 서주시기 지역정치체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가 처한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호

54) 朱凤瀚, 「关于西周封国君主称谓的几点认识」, 『两周封国论衡-陕西韩城出土芮国文物暨周代封国考古学研究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4, p.274.

국은 그 가운데 복종과 협력의 길을 선택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 5 商나라 甲骨文 자료에 보이는 '土'와 '天' 고찰

조용준(중국인민대)

### 목 차

1. 머리말
2. '土'의 용법
  - 2.1. '土'의 문자학적 해석
  - 2.2. 甲骨文 자료에 보이는 '土'해석의 예
  - 2.3.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의 용례
3. '天'의 용법
  - 3.1. '天'의 문자학적 해석
  - 3.2. 甲骨卜辭에 보이는 '天'의 용례
4. 맺음말

### 1. 머리말

'土'와 '天'의 두 글자는 商나라 시기의 고문자학 자료에서부터 출현하면서 甲骨文, 金文, 簡帛文字 등의 출토문헌을 비롯하여 고대의 전래문헌에도 常用되었던 한자이다. 이 두 글자는 '땅'과 '하늘'이라는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오랜 시간의 사용을 통해 字形, 字音, 字義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와 더불어 字義의 확장인 引伸도 점차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문은 商나라의 甲骨文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先秦時代의 전래문헌에도 常用되었던 '土'와 '天' 두 글자의 기본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또한 서로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社', '大' 등의 용례와 비교를 진행하면서, 甲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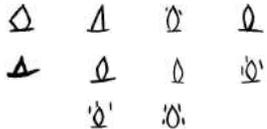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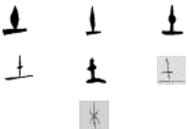
자료에 보이는 ‘土’와 ‘天’의 주요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天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周나라의 金文에서 처음 출현하는 地(隆)는 甲骨文 자료에 한정된 본고의 토론범위를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2. ‘土’의 용법

### 2.1. ‘土’의 문자학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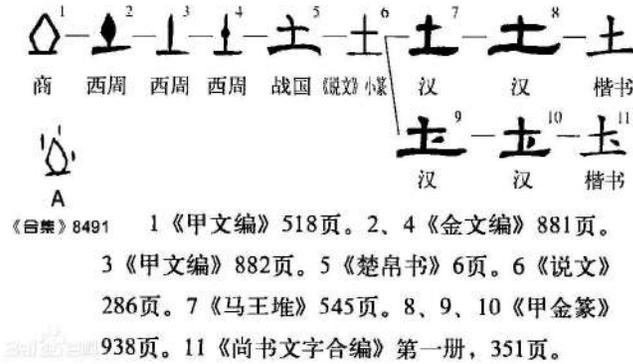
먼저 土에 대해서 東漢時代의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土는 땅이 만물을 내어 기르는 것이다. 이는 땅의 위와 땅의 아래를 본뜨고 있다. 丨은 만물이 뚫고 나오는 모양이다. 무릇 土의 屬들은 모두 이 土를 따른다.”<sup>1)</sup>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商나라 때의 甲骨文, 金文의 字形에서는 地面에 있는 흙덩어리 혹은 토기를 빚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점토모양의 모습을 본뜨고 있는데, 『說文解字』의 土에 대한 해석은 造字의 本義와는 이미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土에 대한 字形變遷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商나라의 甲骨文	周나라의 金文	秦나라의 小篆	漢나라의 隸書	현대의 한자
				

1) (清)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第26卷, 第13篇注下, 「土」, 臺灣, 藝文印書館, 1994, 688쪽, “土, 地之吐生萬物者也. 二, 象地之上, 地之中. 丨, 物出形也. 凡土之屬皆从土.”

2)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北京, 中華書局, 2009, 73-74쪽; 許進雄, 『古文諧聲字根』,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95, 90쪽;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 文字與人類學的透視』(修訂本),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95, 218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9C%9F/34136?fr=aladdin> 등을 참고할 것.



그리고 『漢語大字典』에 따르면, 土의 上古音은 魚鐸陽의 魚部에 속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它魯切, 『廣韻』에서는 他魯切이었으며, 韻部는 魚部에 속하였고, 현대 중국어의 漢語拼音에서는 'tǔ'로 발음되고 있다. 또한 土는 현대한자에서 상용되는 글자로서 그 本義는 土地와 土壤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引伸되어 고향, 本地, 지방, 민간, 토착민, 시대적 조류에 뒤떨어짐, 폐쇄적, 五行의 土, 八音의 하나이자 土製樂器, 社神이나 土地神, 소수민족인 土族, 姓氏 등의 다양한 字義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土는 漢字의 部首로도 사용되어 주로 形符로 사용되고 있는데, 地, 壤, 塵, 埃 등의 흙의 종류; 壟, 埂, 堤, 塘 등의 경작지 작업; 城, 塔, 墓, 壇 등의 건축물의 종류; 基, 址, 垣, 堵 등의 건축물의 구성부분; 境, 域, 塞 등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한다.<sup>3)</sup>

## 2.2. 甲骨文 자료에 보이는 '土' 해석의 예

甲骨文에 보이는 이 土의 字形에 대해 고문자학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王國維, 董作賓, 傅斯年 등은 '相土'의 土로 해석하였지만, 이러한 견해는 孫海波, 陳夢家 등에 의해서 반박을 받았고; 郭沫若, 李孝定은 남성의 생식기를 모방한 '土'로 해석하였으며; 許進雄, 裘錫圭, 徐中舒 등은 흙이나 땅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학자들은 '社'로 해석하여 구체적으로는 社神이나 土地神으로 풀이하고 있다.<sup>4)</sup>

3)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 『漢語大字典』(縮印本),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3, 174-175 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9C%9F/34136?fr=aladdin> 등을 참고할 것.

4) (日)松丸道雄, 高嶋謙一合編, 『甲骨文字字釋綜覽・土』, 日本, 東京大學出版社, 1993,

그 중에서 許進雄의 이 토에 대한 고문자학적 견해를 소개하자면, 먼저 創意分析을 통해 토기를 빚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점토모양을 본뜨고 있고, 또한 단순한 자형으로 인하여 다른 물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자형에 물방울 모양의 符號를 더 덧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기가 있는 점토는 토기를 빚는 재료이고, 또 토기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토를 점토의 형태로 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이 토의 字形變遷에 대하여 먼저 甲骨文에서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삼각형의 모양으로 간략화 되었다가 ( 𠂇 𠂈 ), 다시 나중에 金文에서는 하나의 세로획 중에 한 점을 덧붙인 형태로 자형이 더욱 간략화 되었고 ( 𠂉 𠂊 𠂋 ), 여기서 한 점이 다시 늘어서 가로획의 형태로 변하면서 현재와 같은 토가 되었으며, 그러면서 점토를 표현하던 원래의 자형 형태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토( 𠂇 𠂈 𠂉 )와阜( 𠂊 𠂋 𠂌 𠂍 𠂎 )는 모두 土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의미로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겸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疆( 𠂏 𠂐 𠂑 𠂒 𠂓 ), 阡(址), 坑(阮)에서처럼 가끔 토를 취해서 造字하기도 하였고, 또는 동시에 阜를 취해서 조자하기도 하였다. 또한 城( 𠂔 𠂕 𠂖 𠂗 𠂘 ), 堵( 𠂙 𠂚 ), 坏( 𠂛 𠂜 𠂝 ) 등의 예에서처럼 성곽의 모습을 본뜨고 있는 甲骨文의 郭( 𠂞 𠂟 𠂠 𠂡 )은 성을 쌓는 재료인 甲骨文의 토와 서로 대체될 수 있었고, 型( 𠂢 𠂣 𠂤 𠂥 𠂦 𠂧 𠂨 𠂩 ) 등의 예에서처럼 구획된 논밭의 모습을 본뜨고 있는 甲骨文의 田( 𠂪 𠂫 𠂬 )과 토는 모두 땅과 관련된 일이었다.<sup>7)</sup>

그리고 토와 字義적으로 유사한 地(墜)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 垺 는 太初의 기운이 처음으로 나누어지면서 가볍고 맑으며 陽인 기운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하며 陰인 기운은 땅이 되었다. 萬物이 늘어서 있는 곳이다. 토를 따르고, 也는 聲符이다. 隰 는 籀文의 地이고, 阜(阜)와 토를 따르며, 豕(豕)는 聲符이다.”<sup>8)</sup>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地(墜)는

365-366쪽.

5)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73-74쪽; 許進雄, 『古文諧聲字根』, 90쪽;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 文字與人類學的透視』(修訂本), 218쪽.

6)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194쪽.

7)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222-223쪽.

8)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第26卷, 第13篇注下, 「地」, 688쪽, “ 垺 , 元氣初分, 輕清易爲天, 重濁爲地. 萬物所隸列也. 从土, 也聲. 隰 , 籀文地, 从阜土,

‘天’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周나라의 金文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sup>9)</sup>

그 밖에 이 土는 자형의 類似性으로 인해 出의 隸書體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甲骨文의 土는 흙덩어리의 모습을 본뜨고 있고 (    ), 반면에 갑골문의 出은 발이 반지하식의 주거를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 (     ). 그런데 이 土(  )와 出 (  )의 隸書體 자형이 매우 유사하여 고적문헌의 해독에 가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孟子』 「萬章上」에 보이는 “瞽瞍는 舜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하였는데, [舜이 몰래 옆으로 이미] 나온 [줄 모르고] 그때부터 그것을 덮어버렸다.”<sup>10)</sup>라고 한 구절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使浚井出’은 ‘使浚井土’의 오류이고, 그 때문에 끊어 읽기조차도 달라지게 되었다.<sup>11)</sup>

### 2.3.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의 용례

먼저, 商나라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의 몇몇 용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문습니다: 土地神에게 燎祭를 올릴까요? ( 『合集』 456正)<sup>12)</sup>

문습니다: 甫의 土地神에게 풍년기원을 올리지 말까요?( 『合集』 846)<sup>13)</sup>

甲午日에 점을 치면서 賓이 묻습니다: 서쪽 땅에 풍년이 들까요?

( 『合集』 9742正)<sup>14)</sup>

甲午日에 점을 치면서 賓이 묻습니다: 북쪽 땅에 풍년이 들지 않을까요? 二

告. ( 『合集』 9745)<sup>15)</sup>

亳의 土地神에게 燎祭를 올리려고 하는데 비가 내릴까요? ( 『合集』 28108)<sup>16)</sup>

---

象 聲.” 이 地(墜)와 聲符인 也는 上古音에서 동일하게 歌部에 속하였고, 이 地(墜)의 籀文인 墜(地)의 聲符 豕(彖)에 대해 段玉裁의 注에서는 그 反切音이 ‘式視切’ 이라고 하였다.

9)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9C%B0/34380>을 참고할 것.

10)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附校勘記), 『孟子』, 卷9上, 「萬章上」, 北京: 中華書局, 1980, 2734쪽, “使浚井, 出, 從而揜之.”

11)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245쪽.

12)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1978~1985, 일련번호 456正, “貞: 燎于土?”

13)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일련번호 846, “貞: 勿求年于甫土?”

14)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일련번호 9742正, “甲午卜, 賓貞: 西土受年?”

15)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일련번호 9745, “甲午卜, 賓貞: 北土不其受年? 二告.”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合集』 9742正과 『合集』 9745 등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의 의미는 ‘땅’이나 ‘지역’을 의미하고, 『合集』 456正, 『合集』 846, 『合集』 28108 등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의 의미는 특정지역의 ‘土地神’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土地神에게 제사를 올림으로써 해당지역의 평안과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商나라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는 ‘땅’과 ‘지역’의 의미에서 引伸되어 그 字義가 土地神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고대에는 土地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을 일반적으로 ‘社’라고 하였는데, 『禮記』 「祭法」에 보이는 “共工氏가 九州에서 霸權을 잡았을 적에 그의 아들을 后土라고 불렀는데, 능히 九州를 평안히 하였으므로 제사를 올리고 社를 세웠다.”<sup>17)</sup>라고 한 구절의 예에서처럼, 과중이나 수확의 계절마다 社를 세우고 평안과 풍년기원의 제사를 성대히 올리곤 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立春 후의 다섯 번째 戊日을 土地公의 생일로 삼아 제사를 올리며 한해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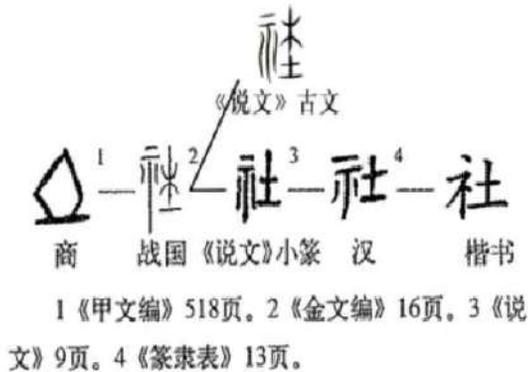
이 社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 社 는 땅을 맡은 神이다. 示와 土를 따른다. 『春秋左傳』에 이르기를, ‘共工氏의 아들인 句龍이 土地神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周나라의 제도에는 스물다섯 가구가 하나의 社가 되어 각각 그 땅에 알맞은 나무를 심었다. 社 는 古文의 社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商나라의 甲骨文에는 社의 자형이 보이지 않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土’를 ‘社’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戰國時代에 들어오면서 ‘土’에 ‘示’의 形符를 첨가하여 ‘社’가 되었다. 이 ‘社’에 대한 字形變遷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社’ 자형의 구성에서 ‘土’는 숭배하는 구체적인 물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19)</sup>

16)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일련번호 28108, “其有燎亳土, 有雨?”

17)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附校勘記), 『禮記』, 卷46, 「祭法」, 1590쪽, “共工氏之霸九州也, 其子曰后土, 能平九州, 故祀以爲社.”

18) (清)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第1卷, 第1篇注上, 「社」, 8쪽, “ 社 , 地主也. 从示土. 『春秋傳』曰: ‘共工之子句龍爲社神.’ 周禮二十五家爲社, 各樹其土所宜木. 社 , 古文社.”

19)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A4%BE/8748585>를 참고할 것.



그리고 이 社의 本義는 土地神이나 土地神에게 제사를 올림을 뜻하고 있지만, 또한 그 의미가 引伸되어 土地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날짜나 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周나라의 제도에서는 스물다섯 가구가 하나의 社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다시 引伸되어 하층 행정단위나 공동행위를 하는 조직 혹은 단체의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sup>20)</sup>

### 3. ‘天’의 용법

#### 3.1. ‘天’의 문자학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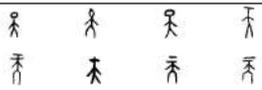
먼저 天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 𠂔 은 꼭대기이다. 지극히 높아 위가 없다. 一과 大를 따른다.”<sup>21)</sup>라고 해석하였다. 甲骨文에서 이 天은 사람의 머리꼭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 머리의 윤곽을 나타내는 하나의 원형 모양만 표시해버리면 다른 물체와 헷사리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형의 아랫부분에 어른의 형태를 덧붙여 그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商나라 甲骨文에 보이는 天의 字形에서는 한 사람이 머리부위를 유난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본뜨고 있는데 ( 𠂔 ), 이 天의 자형에서 원형으로 된 머리형태는 칼로 새기면서 먼저 네모모양으로 되었고 ( 𠂔 ), 나중에 다시 간략화 되어 두 개의 짧은 가로획으로 변하였다( 𠂔 ). 여기

20)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 『漢語大字典』 (縮印本), 998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A4%BE/8748585> 등을 참고할 것.

21) (清)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第1卷, 第1篇注上, 「天」, 1쪽, “ 𠂔 , 顛也. 至高無上. 从一大.”

서 다시 그 중 하나의 가로획을 생략해버렸고 ( 夭 ), 그러다가 春秋時代末期에 이르면서 가장 위의 평평한 부분에 하나의 짧은 가로획을 덧붙이게 되었지만 ( 夭 ), 반면에 小篆體에서는 다시 이 짧은 가로획을 생략하고 있다 ( 夭 ). 다시 말해서, 이 夭는 머리부분을 까맣게 메웠던 자형형태가 먼저 빈 사각형 모양으로 되었고, 이것이 다시 두 짧은 가로획으로 간략화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다시 짧은 한 가로획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머리의 형태는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 夭 夭 夭 夭 ).<sup>22)</sup> 이 夭에 대한 字形變遷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商나라의 甲骨文	周나라의 金文	秦나라의 小篆	漢나라의 隸書	현대의 한자
				



그리고 『漢語大字典』에 따르면, 夭의 上古音은 脂質眞의 眞部에 속하였고, 『說文解字』와 『廣韻』에서는 他前切이었으며, 韻部는 眞部에 속하였고, 현대 중국어의 漢語拼音에서는 ‘tian’으로 발음되고 있다. 또한 夭는 현대한자에서 상용되는 글자로서 그 本義는 ‘地’와 상대적인 의미로 사람의 머리꼭지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引伸되어 이마, 하늘, 남편, 임금, 우주, 天帝(天神), 天堂, 氣象, 계절, 刺字의 刑罰, 姓氏 등의 다양한 字義가 생겨나게 되었다.<sup>24)</sup>

22)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194쪽.

23)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75-76쪽; 許進雄, 『古文諧聲字根』, 705쪽;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 文字與人類學的透視』(修訂本), 519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9/34055> 등을 참고할 것.

甲骨文에 보이는 이 天의 字形에 대해 고문자학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는데, 예를 들어 王國維는 象形字, 指事字로 보았고; 島邦男, 李孝定, 赤塚忠 등은 ‘大’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陳夢家는 商나라의 숭배대상은 ‘帝’, 周나라의 숭배대상은 ‘天’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의 머리’나 ‘하늘’로 해석하고 있다.<sup>25)</sup>

### 3.2. 甲骨卜辭에 보이는 ‘天’의 용례

먼저, 商나라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天’의 몇몇 용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庚辰日에 [……] 왕이 자신의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合集』 2097 5)<sup>26)</sup>

辛卯日에 왕이 [……] ■에서 ■方을 [……], 우리가 서쪽으로 정벌을 나가면 [……]하고, 우리가 재앙을 맞닥치지 않을까요? 위대한 도움지인 商에서 [……]하면, [……]이 없을까요? (『合集』 36535)<sup>27)</sup>

辛酉日에 점을 치면서 묻습니다: ■에 있는 위대한 도움지인 商의 公宮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밤에 재앙이 없고 평안할까요? (『合集』 36541)<sup>28)</sup>

甲午日에 점을 치면서 묻습니다: ■에 있는 위대한 도움지인 商의 皿宮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밤에] 재앙이 없고 평안할까요?<sup>29)</sup>

乙丑日에 점을 치면서 묻습니다: ■에 있는 위대한 도움지인 商의 公宮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밤에 재앙이 없고 평안할까요? 九月. (이상은 모두 『合集』 36542에 보임)<sup>30)</sup>

天에게 ■牛로 禦祭를 올릴까요? (『小屯』 2241)<sup>31)</sup>

24)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 『漢語大字典』 (縮印本), 219-220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9/34055> 등을 참고할 것.

25) (日)松丸道雄, 高嶋謙一合編, 『甲骨文字字釋綜覽·天』, 3-4쪽.

26)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全十三冊), 일련번호 20975, “庚辰 𠄎 王弗疾朕天?”

27)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全十三冊), 일련번호 36535, “辛卯王 𠄎 方于 𠄎, 余其畚(西)𠄎(伐) 𠄎, 余有不 𠄎(遇) 𠄎(災)? 𠄎 天(大)邑商, 亡 𠄎?”

28)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全十三冊), 일련번호 36541, “辛酉卜, 貞: 才(在)■天(大)邑商公宮衣(終), 茲夕亡 𠄎(禍), 寧?”

29)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全十三冊), 일련번호 36542, “甲午卜, 貞: 才(在)■天(大)邑商皿宮衣(終), 𠄎(茲夕)亡 𠄎(禍), 寧?”

30)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全十三冊), 일련번호 36542, “乙丑卜, 貞: 才(在)■天(大)邑商公宮衣(終), 茲夕亡 𠄎(禍), 寧? 才(在)九月.”

3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小屯南地甲骨』 (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 일련번호 2241, “ 𠄎(推)禦■牛于天?”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合集』 20975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고, 『小屯』 2241에서는 제사를 받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용례에서 禦祭를 받는 대상이 人神과 祖上神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기의 ‘天’도 ‘天庚’, ‘天戊’, ‘天癸’의 예에서처럼 이미 작고한 祖上神의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sup>32)</sup> 陳夢家도 商나라의 숭배대상은 天神인 ‘上帝’이고, 周나라의 숭배대상은 ‘天’이라고 주장하였다.<sup>33)</sup>

그리고 『合集』 36535, 『合集』 36541, 『合集』 36542 등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天邑商’에서 ‘天邑’은 형용사 수식어로 쓰여 ‘위대한 도읍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뒤에 나오는 ‘商’이라는 地名을 꾸미고 있다.<sup>34)</sup> 또한 ‘天邑商’이 다른 대부분의 용례에서 ‘大邑商’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卜辭의 용례에서 ‘天’은 ‘大’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尚書』 「多士」에는 “朕은 오로지 德이 있는 이의 말을 듣고 등용할 것이므로, 朕이 감히 그대들을 天邑商에서 구함은 朕은 단지 그대들을 솔직히 矜恤히 여기기 때문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大’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 大 는 하늘은 크고 땅도 크며 사람도 또한 큰 것이다.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있다. 古文의 𠂔 (大)이다. 무릇 大의 屬들은 모두 이 大를 따른다.”<sup>36)</sup>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 이 大는 어른의 정면모습을 본뜨고 있으므로 表意字로 보기도 하지만, 또한 어린아이보다 몸집이 큰 어른의 모습을 빌려 사물의 大小 개념을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指事字로 보기도 한다.<sup>37)</sup> 이 大에 대한 字形變遷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32) 王蘊智, 趙偉, 「商代甲金文中 ‘天’ 字構形及用法小考」, 『中國文字研究』 32, 中國文字研究編輯部, 2020, 5-9쪽.

33) (日)松丸道雄, 高嶋謙一合編, 『甲骨文字字釋綜覽·天』, 3-4쪽.

34) 王蘊智, 趙偉, 「商代甲金文中 ‘天’ 字構形及用法小考」, 『中國文字研究』 32, 中國文字研究編輯部, 2020, 1-5쪽.

35)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附校勘記), 『尚書』, 卷16, 「多士」, 1590쪽, “予一人惟聽用德, 肆予敢求爾于天邑商, 予惟率肆矜爾.”

36)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第19卷, 第10篇注下, 「大」, 496-497쪽, “ 大 , 天大地大人亦大焉. 象人形. 古文 𠂔 也. 凡大之屬皆从大.”

37)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67-68쪽.

38) 許進雄編,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67-68쪽; 許進雄, 『古文諧聲字根』, 476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7/34128> 등을 참고할 것.

商나라의 甲骨文	周나라의 金文	秦나라의 小篆	漢나라의 隸書	현대의 한자
				

大의 本義는 수량, 면적, 크기, 용적 등의 부분에서 ‘小’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의미가 引伸되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다는 의미의 ‘大鳴大放’과 같이 범위가 깊고 넓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大作’과 같은 의미를 더불어 지니게 되었다.<sup>39)</sup>

그러나 어른이 정면으로 서있는 모습을 본뜨고 있는 甲骨文에서 大의 자형은 사람의 머리꼭지 모양을 본뜨고 있는 甲骨文에서 天의 자형과 매우 유사한 까닭에, 이 두 글자는 고대의 각종문헌에서 서로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 4. 맺음말

본문은 商나라의 甲骨文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先秦時代의 전래문헌에도 常用되었던 ‘土’와 ‘天’ 두 글자의 기본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또한 서로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社’, ‘大’ 등의 용례와 비교를 진행하면서, 甲骨文 자료에 보이는 ‘土’와 ‘天’의 주요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商나라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土’는 ‘땅’과 ‘지역’의 의미에서 引伸되어 그 字義가 土地神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土’를 ‘社’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戰國時代에 들어오면서 ‘土’에 ‘示’의 形符를 첨가하여 ‘社’가 되었다.

그리고 商나라의 甲骨卜辭에 보이는 ‘天’의 의미로는 사람의 머리, 제사를 받는 대상 등이 있었고, 자형의 유사성 및 ‘天邑商’과 ‘大邑商’의 예를 통해 甲骨文에서 天은 大와 서로 통용될 수 있었다.

‘土’와 ‘天’의 두 글자는 商나라 시기의 고문자학 자료에서부터 출현하면서 甲骨文, 金文, 簡帛文字 등의 출토문헌을 비롯하여 고대의 전래문헌에도

39)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 『漢語大字典』 (縮印本), 219쪽;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7/34128> 등을 참고할 것.

常用되었던 한자이다. 그러나 이 두 글자는 ‘땅’과 ‘하늘’이라는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甲骨文 자료에서는 地神-天神, 땅-하늘 등과 같은 상호 연결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 【參考文獻】

### 1. 원전자료

(清)阮元校刻, 『十三經注疏(附校勘記)』(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臺北: 藝文印書館, 1994.

### 2. 논저자료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1978~1985.

王蘊智, 趙偉, 「商代甲金文中‘天’字構形及用法小考」, 『中國文字研究』32, 中國文字研究編輯部, 2020.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趙容俊, 『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小屯南地甲骨』(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 『漢語大字典』(縮印本),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3.

許進雄, 『簡明中國文字學』(修訂版), 北京: 中華書局, 2009.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 文字與人類學的透視』(修訂版),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95.

許進雄, 『古文諧聲字根』,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

(日)松丸道雄·高嶋謙一合編, 『甲骨文字字釋綜覽』, 日本: 東京大學出版社, 1993.

### 3. 인터넷 자료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9C%9F/34136?fr=aladdin>.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9C%B0/34380>.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A4%BE/8748585>.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9/34055>.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5%A4%A7/34128>.



## 6 五方 체계로 본 五獸의 기원

박성우(홍익재단)

### 목 차

1. 머리말
2. 전래 문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
3. 문헌에 근거한 五獸의 기원
4.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殷商 갑골문에 근거하면, 지리적 형태를 동, 서, 남, 북 네 방위와 네 방위의 중심 공간을 중앙으로 삼아 東, 西, 南, 北, 中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 다섯 방위가 기초 되어 각각의 방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행위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지칭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거나, 중앙이 주체되어 사방을 향한 점술 의식이 거행되었기도 한다.<sup>1)</sup> 이는 영토적 공간을 五方이라는 틀에 규격화하고, 당시 목축업과 농경사회라는 기본적인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나타난 표현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이 五方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근본과 대상이 다른 계통과 복잡하게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나 만상을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려는 흥

1) 갑골문 합집(이하 『습』로 약칭) 36975에서 다섯 방위의 수확을 점친 기록이 확인되며, 『습』 14295, 『습』 30391에서 각각 중심 공간에서 사방을 향한 풍년 祭祀 또는 다섯 신하를 지칭하는 帝五臣의 형태가 확인된다. 郭沫若,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3年.

미로운 인식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전국시대 이후의 전래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禮記』, 『獨斷』, 『孔子家語』 등의 고대 문헌 자료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管子·四時」: "동방을 星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봄이며, 그 기운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木과 骨을 낳고, 그 덕은 기쁨으로 가득 차 만물을 시기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방을 日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며, 그 기운은 양이라고 한다. 양은 (五行의) 火와 氣를 낳는다. 그 덕은 은락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중앙을 土라고 하는데, 토의 덕은 사시를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운행을 도우며, 토기를 조절하여 힘을 이롭게 한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는다.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며, 中正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참으로 사시를 돕는다. ……서방을 辰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며, 그 기운은 陰이라고 한다. 음은 (五行의) 金과 생물의 껍질(甲)을 낳는다. 그 덕은 근심하고 슬피함, 고요하고 바름, 장엄하고 화순함, 거처함에 감히 방랑하지 않음이다. ……북방을 月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며, 그 기운은 추위라고 한다. 추위는 (五行의) 水와 생물의 血을 낳는다. 그 덕은 순박하고 청초함, 온량한 위세, 자세하고 세밀함이다(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贏, 而發出節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入出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膚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佚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sup>2)</sup>

『淮南子·天文訓』: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방은 목이다. 그곳의 帝는 태호이고 그 보좌는 구망이 하며, 컴퍼스(規)를 쥐고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을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곳의 帝는 염제, 그 보좌는 주명이 하며, 저울(衡)을 쥐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토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성(鎮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곳의 帝는 소호이고, 그 보좌는 옥수가 하며, 자(矩)를 쥐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태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帝는 전욱, 그 보좌는 현명이 하며, 저울추(權)를 쥐고 겨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辰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

2)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842-854쪽.

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為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為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為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為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為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sup>3)</sup>

이상 문장의 대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섯 방위를 중심으로 帝, 보좌(佐), 계절, 氣, 神, 獸, 音, 日 등의 인격적, 추상적, 물질적 계통의 요소가 분류 배속되었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각각의 방위에 사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의 순환이 맞물렸으며, 존귀한 존재와 자연계의 만사만물이 각각 체계적으로 배속된 형태를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목, 화, 토, 금, 수라는 五行 또한 다섯 방위에 분류 배속되어 있으며, '동방은 목이다.....남방은 화이다.....중앙은 토이다.....서방은 금이다.....북방은 수이다'라는 A=B 형태의 수평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五方の 형태를 중심으로 그 확대된 표현은 동아시아 고대인들의 사상과 문명에 뿌리 깊게 침투되어 활용되었고, 『文子·微明』에서 '天에는 오방이 있고, 地에는 오행이 있다. 聲에는 오음이 있고, 物에는 오미가 있으며 色에는 오장이 있고, 人에는 오위가 있다(天有五方, 地有五行, 聲有五音, 物有五味, 色有五章, 人有五位).'라고 서술된 부분과 중의경전의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서 '황제가 물었다. 天에는 오행이 있어 五位를 다스리며, 이로써 寒, 暑, 燥, 濕, 風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에는 오장이 있어 오장의 기를 변화하며, 이로써 喜, 怒, 思, 憂, 恐이 발생합니다(黃帝問曰: 天有五方, 御五位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라고 하여 여러 분야에 다섯 형태의 구분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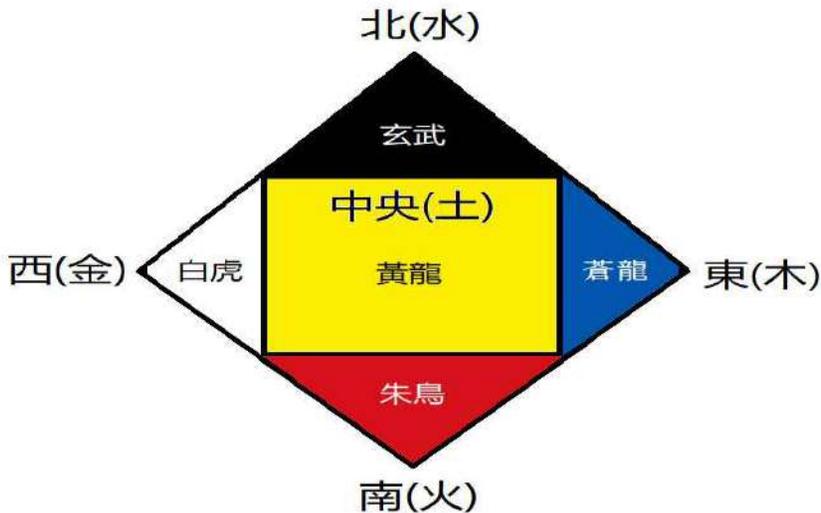
본 논문은 五行의 토대는 공간적 형태를 다섯 형태로 구분한 방위 체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선행 분석의 후속 작업으로 五方 체계로 본 五方の 확대 형태, 五行, 五帝 분석에 이어 五獸에 대한 문헌의 기록을 집대성하여 배속된 형태를 정리 범주하고, 다섯 동물의 선정된 과정과 전체적인 발전 체계의 경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五獸의 기원에 대하여 정립하고, 문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年, 183-188쪽.

## 2. 전래 문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

전래 문헌을 보면, 다섯 방위를 구분하여 인간계와 자연계의 만사만물을 각각의 규칙과 체계에 따라 분류 배속하였고, 五獸 역시 이 체계에 따라 각각의 방위에 배속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五獸에 선정되어 각각의 방위에 귀속된 경위와 근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래 문헌 자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먼저, 앞서 제시한 『淮南子·天文訓』에 보이는 다섯 동물의 형태를 제시하고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淮南子·天文訓』: "동방은 목이다.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을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 (東方, 木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



<그림 1> 五方과 五獸 정리

주지하듯이 五獸는 다섯 종류의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한 시기 劉安이

저술한 『淮南子·天文訓』편에는 동방은 창룡(蒼龍), 남방은 주조(朱鳥),<sup>4)</sup> 중앙은 황룡(黃龍), 서방은 백호(白虎), 북방은 현무(玄武)가 각각 배속되었고, 동-남-중앙-서-북 형태의 오행 상생 이론을 바탕에 두고 서술되었다. 이 밖에 『淮南子』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吳子·治兵』에서는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 깃발을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아래에서 지휘한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招搖在上, 從事於下).'라고 하여 북쪽을 등지고 '왼쪽=동쪽=靑龍', '오른쪽=서쪽=白虎', '앞쪽=남쪽=朱雀', '뒤쪽=북쪽=玄武', '중앙=招搖'로 사방에 배속된 동물이 『淮南子』와 동일하며, 단지 방위의 배치를 동-서, 남-북의 대치된 구조로 서술하였다. 특히 후대 문헌의 중앙에 배속된 黃龍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휘 용도의 招搖旗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여 중앙 공간을 독립적이고 사방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 강조하였다. 또한 『禮記·曲禮上』에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 기를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사졸들의 전투 기세를 중요히 다스린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 招搖在上, 急繕其怒).'라고 하여 『吳子·治兵』의 용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되었고, 이에 漢代 이전 시기의 전래 문헌에서는 四獸 즉,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상징하는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의 네 동물만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春秋시대 管仲의 사상이 담긴 『管子』의 「幼官」 편에서 위와 다른 형태의 동물이 다섯 방위에 배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보면:

「幼官」: "五和時節에 군주는 황색 옷을 입고, 단맛을 맛보고, 宮聲을 들으며, 和氣를 다스린다. 五數를 사용하고, 黃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倮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方中에 있어야 한다. ……八舉時節에 군주는 청색 옷을 입고, 신맛을 맛보고, 角聲을 들으며, 燥氣를 다스린다. 八數를 사용하고, 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羽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 ……七舉時節에 군주는 붉은색 옷을 입고, 쓴맛을 맛보고, 羽聲을 들으며, 陽氣를 다스린다. 七數를 사용하고, 赤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毛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 ……九和時節에 군주는 흰색 옷을 입고, 매운맛을 맛보고, 商聲을 들으며, 溼氣를 다스린다. 九數를 사용하고, 白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介蟲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 ……六行時節에 군주는 검은색 옷을 입고, 짠맛을 맛보고, 徵聲을 들으며, 陰氣를 다스린다.

4) 高誘 注에서 '주조는 주작이라고도 한다(朱鳥, 朱雀也).'라고 하였다.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년, 150쪽.

六數를 사용하고, 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鱗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5)

[표 1] 『管子·幼官』의 다섯 분류표

五方	中央	東	南	西	北
時期	五和時節	八舉時節	七舉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
四時	--	봄	여름	가을	겨울
五色	黃色	青色	赤色	白色	黑色
五獸	倮獸	羽獸	毛獸	介蟲	鱗獸

이상 「幼官」 편 또한 앞서 제시한 문헌 용례와 유사한 형태로 방위와 사시가 연계되어 복식, 맛, 소리, 색깔, 숫자 등의 계통이 분류 범주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방위에 배속된 다섯 동물이 中央-倮獸, 東方-羽獸, 南方-毛獸, 西方-介蟲, 北方-鱗獸 등 동물의 분류에 따라 구분되었고, 다섯 동물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다른 문헌보다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되었으며, 漢代 『大戴禮記』 「曾子天圓」 편의 '털이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기린이라 하고, 날개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봉황이라 하며, 꺾질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거북이라 하고, 비늘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용이라 하며, 털이 없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성인이라 한다(毛蟲之精者曰麟, 羽蟲之精者曰鳳, 介蟲之精者曰龜, 鱗蟲之精者曰龍, 倮蟲之精者曰聖人).' 라는 구절을 참고하여 각각의 방위에 대표되는 구체적인 동물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周禮·考工記·梓人』에서 '천하의 큰 짐승은 5가지인데 비계가 있는 것, 지방이 있는 것, 털이 없는 것, 깃이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이다(天下之大獸五: 脂者, 膏者, 裸者, 羽者, 鱗者).'라고 하여 「幼官」 편과 유사

5)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治和氣, 用五數, 飲於黃后之井, 以倮獸之火爨, ……此居圖方中……八舉時節, 君服青色, 味酸味, 聽角聲, 治燥氣, 用八數, 飲於青后之井, 以羽獸之火爨, ……此居於圖東方方外……七舉時節, 君服赤色, 味苦味, 聽羽聲, 治陽氣, 用七數, 飲於赤后之井, 以毛獸之火爨, ……此居於圖南方方外……九和時節, 君服白色, 味辛味, 聽商聲, 治溼氣, 用九數, 飲於白后之井, 以介蟲之火爨, ……此居於圖西方方外……六行時節, 君服黑色, 味鹹味, 聽徵聲, 治陰氣, 用六數, 飲於黑后之井, 以鱗獸之火爨, ……此居於圖北方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35-158쪽.

한 형태로 동물 특징에 근거해 서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五獸의 형태에 관하여 『五行大義』의 기록을 주목해 보도록 한다. 비록 蕭吉이 찬술한 『五行大義』는 이상 제시한 몇몇 문헌 보다 한참 후대인 隋代의 문헌이지만, 이전 전적들의 오행과 관련된 기록을 참고 발췌하여 오행의 정의에서부터 천문, 지리, 상승이론, 간지와와의 배합, 칠정, 정치, 벼슬, 왕조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풀이 내용을 집대성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단 한 차례 '五獸'라는 단어가 등장하며,<sup>6)</sup> 다섯 동물의 명칭은 문헌 곳곳에 산견되어 있다.

「第二十一論五帝」: "그러므로 녹도에 이르기를 '동방의 창룡은 본체가 창룡이고, ……남방의 적제는 본체가 주조이고, ……중앙의 황제는 본체가 현원이고, ……서방의 백제는 본체가 백호이고, ……북방의 흑제는 본체가 현무이다'라고 하였다(故錄圖云: 東方蒼帝, 體爲蒼龍, ……南方赤帝, 體爲朱鳥, ……中央黃帝, 體爲軒轅, ……西方白帝, 體爲白虎, ……北方黑帝, 體爲玄武)."

「第二十三論諸人·人配五行」: "앞은 주작이고, 뒤는 현무이며, 좌는 청룡이고, 우는 백호이니 이를 四體라 한다. 머리는 구진으로 이것은 몸의 주인이다(前爲朱雀, 後爲玄武, 左爲青龍, 右爲白虎, 是曰四體, 頭爲勾陳, 是身之主)."

「第二十四論禽蟲·五靈」: "史蘇龜經에서 이르기를 木의 신 창룡은 세성의 정수이고, 화의 신 주작은 형혹성의 정수이며, 회토의 신은 이름이 등사이고, 토의 신 구진은 진성의 정수이며, 금의 신 백호는 태백성의 정수이고, 수의 신 현무는 진성의 정수이다(史蘇龜經云: 木神蒼龍, 歲星之精, 火神朱雀, 熒惑之精, 灰土之神, 名曰騰蛇, 土神勾陳, 鎮星之精, 金神白虎, 太白之精, 水神玄武, 辰星之精)."

「第二十四論蟲禽·五靈」: "또한 용은 수에서 나서 목에서 놀고, 새는 목에서 나서 화에서 놀며, 기린은 화에서 나서 토에서 놀고, 호랑이는 토에서 나서 금에서 놀며, 거북은 금에서 나서 수에서 노니 그 어미가 닮으면 그 자식에게 도달한다(亦龍生於水, 游於木, 鳥生於木, 游於火, 麟生於火, 游於土,

6) 「第二十四論蟲禽·五靈」: "채옹의 『월령장구』에서 말하길 천관의 오수는 '왼쪽 창룡은 대진의 모습이고, 오른쪽 백호는 대량의 무늬이며, 앞 주작은 순화의 몸체이고, 뒤 현무는 거북과 뱀의 체질이며, 중앙 대각은 현원, 기린의 신의이다'라고 하였다(案蔡邕『月令章句』言: 天官五獸, 左蒼龍, 大辰之貌, 右白虎, 大梁之文, 前朱雀, 鶉火之體, 後玄武, 龜蛇之質, 中有大角軒轅、麒麟之信)." 王雲五 主編, 「五行大義·卷五」, 『叢書集成』, 北京: 商務印書館, 1937年, 33쪽.

虎生於土，游於金，龜生於金，游於水，修其母，致其子)."

[표 2] 『五行大義』 편목별 오수 구분표

구분	동방	서방	중앙	남방	북방
第二十一論五帝	창룡	백호	현원	주조	현무
第二十三論諸人·人配五行	청룡	백호	구진	주작	현무
第二十四論禽蟲·五靈	창룡	백호	구진	주작	현무
第二十四論蟲禽·五靈	용	호랑이	기린	새	거북

정리된 [표2]를 통해 드러나듯이 동·서·남·북 네 방위에는 각각 동일해 보이는 동물이 배속되었지만, 특이하게도 중앙을 나타내는 토에는 문헌에 따라 구진, 기린 등의 서로 다른 동물이 배속되었거나, 동물이 아닌 五帝의 중앙에 배속된 현원이 대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에 배속된 대상이 교체되는 현상은 중앙 토를 네 방위와 다른 단독적인 특수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행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앙 공간의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중앙 토를 중시했던 인식은 고대 문헌을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고, 그 중요도 또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몇몇 용례를 제시하면:

『管子·四時』: "중앙은 土이다. 토덕은 사시의 시작과 끝을 충실히 돕고, 바람과 비로 토를 조절하여 이롭게 한다(中央曰土，土德實輔四時入出，以風雨節土益力)."

『國語·鄭語』: "그러므로 선왕은 토와 금·목·수·화를 배합하여 만물을 만들었다(故先王以土與金木水火雜，以成百物)."

『春秋繁露·五行之義』: "土는 중앙에 자리하므로 天의 은덕이라 한다. 土는 天의 가장 신임하는 신이다. 그 덕은 무성히 아름다워 한 계절의 일로 명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오행이지만 四時만 언급한 것이다. 토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른다(土居中央，為之天潤。土者，天之股肱也。其德茂美，不可名以一時之事，故五行而四時者。土兼之也)."

『春秋繁露·五行對』: "오행에서 토보다 귀한 것은 없다. 토는 사시에 命을 받은 바 없고, 火와 공명을 나누지도 않는다. 목은 봄이라 명칭하고, 화는 여름이라 명칭하며, 금은 가을이라 명칭하고, 수는 겨울이라 명칭한다. 충신의 충의, 효자의 효행은 토에서 취한 것이다. 토는 오행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의로움을 더할 수 없다(五行莫貴於土. 土之於四時無所命者, 不與火分功名. 木名春, 火名夏, 金名秋, 水名冬. 忠臣之義, 孝子之行, 取之土. 土者, 五行最貴者也, 其義不可以加矣)."

일찍부터 지리적 영역의 중앙 土 공간이 강조되었고, 중앙의 공간에서 사방의 만사 만물을 제어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계에 발생하는 현상까지 주재한다는 천하 중심주의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특히 「第二十一論五帝」에서는 중앙에 황제 헌원을 배치하여 지배층이 속한 중앙에서 공간 개념의 모든 객체를 통제 조절할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사유체계가 적용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지배층 중심 공간이 중앙을 의미한다는 관념에서 시작된 현상으로, 점차 확대 발전되어 『國語·吳語』에서는 "저 월왕 구천은 신의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四方의 민심이 따르며 해마다 곡식이 때때로 풍성하니 국력이 날로 융성해지고 있습니다(夫越王好信以愛民, 四方歸之, 年穀時熟, 日長炎炎)."라는 구절과 같이 각자 선별된 중요 인물이 중앙 점유 대상이 되어 독자적 형태의 사방을 구축하였고, 중앙으로부터 영향력 내에 속한 사방의 사회 질서와 정치 법도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독자적 형태의 중앙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발전되어 『五行大義』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第二十四論禽蟲』의 "나라의 임금의 행차하면 앞에는 주작, 뒤에는 현무, 왼쪽은 창룡, 오른쪽은 백호가 있다(國君行前朱雀, 後玄武, 左蒼龍, 右白虎)."와 『第二十四論禽蟲』: "『상서형덕방』에 말하기를 '동방은 봄이고 창룡이며 지혜롭고 어질다. 남방은 여름이고 주작이며 예가 좋다. 서방은 가을이고 백호이며 의리있는 일을 집행한다. 북방은 겨울이고 현구이며 신실함을 주관한다. 중앙토의 정기에 모인다'고 하였다(『尚書刑德放』言, 東方, 春, 蒼龍, 其智仁. 南方, 夏, 朱鳥, 好禮. 西方, 秋, 白虎, 執義. 北方, 冬, 玄龜, 主信. 會中央土之精)."와 같은 문장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박성우, 문치웅, 「五行 이론으로 본 五帝의 기원과 형성」, 『동양고전연구』 第87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22년.

결과적으로 토가 五方 체계에 배속되어 있는 동시에 四方의 발원지 또는 四方을 모두 아우르는 특수 공간으로 인식한 고대인들의 사유체계가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존재의 점유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징 동물이 중앙에 배속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지배층이 속한 공간 중앙 토를 독자적인 형태로 강조하려는 시도에서 토의 상징동물 또한 다른 동물로 표현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다섯 동물이 선정된 근원은 무엇인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통하여 추적해 보도록 한다.

### 3. 문헌에 근거한 五獸의 기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五獸는 지리적 구역을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으로 구분한 방위 구조에 배속된 동물을 의미하고, 동물의 포괄적인 분류법에 근거해 배속한 형태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에는 황룡, 구진, 기린 또는 五帝의 현원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배속되었고, 四方에는 동-창룡, 서-백호, 남-주조, 북-현무로 비교적 고정된 형태를 보인다.

본장에서는 이들 五獸가 선정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먼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텍스트 자료인 殷商 갑골문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필사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은 전사 과정 시기의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 전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원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오류가 그대로 후대에 전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류가 최초의 의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그릇된 역사적 진실이 그대로 후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출토자료의 경우 제작 당시의 의도에 따라 주조 또는 새겨진 후에 수정 보완 없이 후대로 전해져 제작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이에 원초적인 의미 탐구에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필사된 문헌의 오류 수정과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殷商 갑골문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蒼龍, 朱鳥, 黃龍, 白虎, 玄武에서 색깔을 의미하는 蒼, 朱, 黃, 白, 玄을 제외하면, 龍, 鳥 또는 雀, 虎, 武로 분리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네 동물은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모두 각각 邦國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살펴보면:

(1) 龍

貞：王<sub>惠</sub>龍方伐。(『合』6476)

접치기를, 왕은 용방을 공격할 것이다.

王勿惟龍方伐。(『合』6476)

왕은 용방을 공격하지 말라.

(2) 虎

□□卜, □, 貞：令望(乘)眾輿其<sub>會</sub>8)虎方, 告于祖乙。十一月。(『合』6667.1)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접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祖乙에게 고합니다. 12월.

□□卜, □, 貞：令望乘眾輿其<sub>會</sub>虎方, 告于大甲。十一月。(『合』6667.4)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접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大甲에게 고합니다. 11월.

□□卜, □, 貞：令望乘眾輿<sub>會</sub>虎方。十一月。(『合』6667.5)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접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11월.

(3) 鳥 또는 雀

……由友<sub>佳</sub>……于鳥。(『合』8239)

……由友는……鳥에서 ……

……取由友于鳥。(『合』8240反)

……鳥에서 由友를 얻다.

乙巳卜, 爭, 貞：雀弗其<sub>獲</sub>亘, 二告。(『合』6952正)

乙巳일에 균열을 내어 爭이 접치기를, 雀은 亘을 포획할 수 없다. 두 번째 고하다.

癸丑卜, 賓, 貞：于雀<sub>草</sub>{塙}。(『合』13515)

8) 朱鳳瀚이 '會'를 '會'로 고석한 견해를 참고하였다.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9년.

癸丑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접치기를, 雀에 성을 축조할 것이다.

(4) 武

乙未卜, 賓, 貞: 以武芻. (『合』 456正.7)

乙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접치기를, 武 지역의 사람을 거느리고 짐승 사육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 갑골문 용례의 龍, 虎, 雀, 武는 은상시기 邦國의 명칭으로, 이 중에서 (3)의 (『合』 8239), (『合』 8240反)은 꺾문으로 인하여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갑골문 '于'가 주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놓여 전치사로 사용된 문장 서술 구조에 근거한다면, '鳥' 또한 틀림없는 하나의 지명을 말한다.

殷商 갑골 자료를 통해 방국의 위치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참고해보면, '龍'은 山西省 중부 지역, '虎'는 河南省 息縣과 商城縣 사이의 淮水 부근, '雀'은 山西省 서남부 또는 河南省 서북부 일각에 각각 있으며,<sup>9)</sup> '武'는 지금의 河北省 文安縣<sup>10)</sup>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방국의 위치는 河北省, 山西省, 河南省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五方に 배속된 동-龍, 서-虎, 남-雀, 북-武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시기 각 부족의 토당을 이용하여 방국을 명명하였다는 기존 통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로 방국을 명명한 선택 기준과 과정, 그리고 五方の 연관성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五方に 배속된 동물이 방국의 명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앞장에서 살펴본 문헌 용례를 다시 한 번 제시하도록 한다. 『吳子·治兵』의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 깃발을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아래에서 지휘한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招搖在上, 從事於下).''라고 하였고, 『禮記·曲禮上』에서 또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 기를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사졸들의 전투 기세를 중요히 다스린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 招搖在上, 急繕其怒).''라고 하여 동쪽에는 靑龍, 서쪽에는 白虎, 남쪽에는 朱雀, 북쪽에는 玄武, 중앙에는 招搖旗를 구성하였다. 이상 구절에 대한 鄭玄 注를 보면, '招搖는 북두칠성의 자루 끝에 있고, 주

9)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臺北: 藝文印書館, 1989년, 198쪽, 223쪽, 1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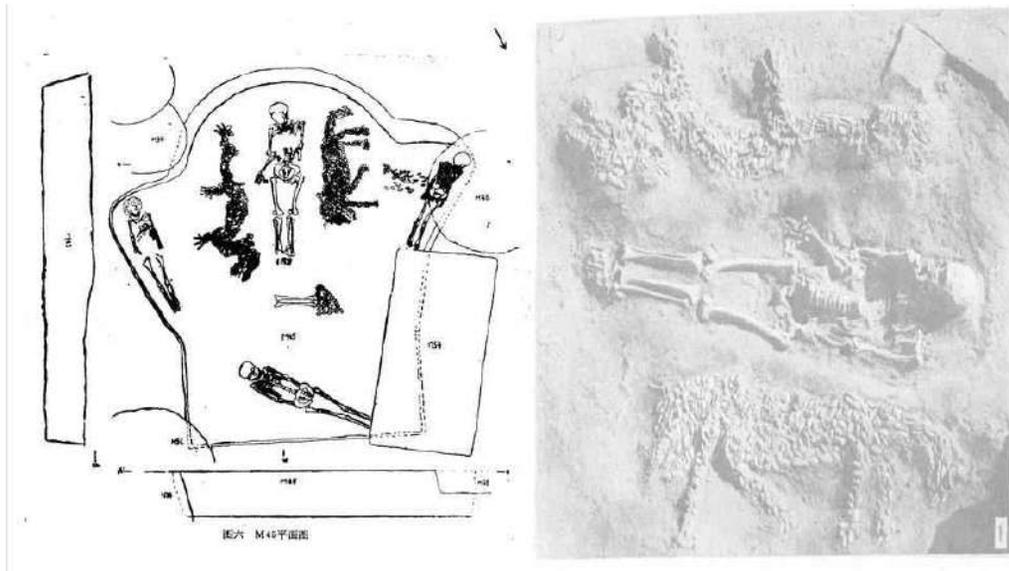
10) 黃德寬, 『古文文字譜係疏證(第二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7년, 1695쪽.

지한 별이다(招搖在北斗杓端, 主指者).<sup>11)</sup>라고 하여 중앙에 위치한 招搖旗의 招搖는 별자리 이름으로 북두칠성의 일곱 번째 별, 즉 국자의 자루 끝 부분에 위치한 별을 말한다. 마치 『論衡·物勢』에서 "동방은 목이다. 그 별은 창룡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 별은 백호이다. 남방은 화다. 그 별은 주조이다. 북방은 수다. 그 별은 현무이다. 하늘에는 네 별의 정수가 있고, 네 동물의 몸체를 낳았다(東方木也, 其星蒼龍也. 西方金也, 其星白虎也. 南方火也, 其星朱鳥也. 北方水也, 其星玄武也. 天有四星之精, 降生四獸之體)."라는 동·서·남·북 네 별의 정수가 바로 招搖를 나타낸다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 시기 영토의 공간적 형태를 동·서·남·북·중으로 구분한 방위 구조 체계가 천문에 또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북극이 중심되어 천체를 다섯 방위로 구분해 관측된 동시에 일상생활에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으로 일찍이 河南省 濮陽縣 西水坡에서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시기의 仰韶문화 유적이 발견되었고 M45 고분에서 고분 주인과 조개껍질로 수놓은 동물이 확인되었는데,<sup>12)</sup> 이는 오수의 기초 형태로 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골은 고분 중앙에 위치하며 몸은 반듯이 누운 자세로 머리는 남쪽, 다리는 북쪽을 향해 북극과 서로 대응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쪽 측면에는 조개껍질로 만들어진 한 마리의 용과 호랑이가 위치해 있다. 용은 인골의 우측에 있고, 머리는 북쪽, 등은 서쪽을 향하며 몸은 굽은 형태를 보인다. 또한 호랑이는 인골의 좌측에 있고, 머리는 북쪽, 등은 동쪽을 향하여 마치 묘주를 양 측면에서 보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래 발굴된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11) [清] 孫希旦, 『禮記集解(全三冊)』, 北京: 中華書局, 1989年, 84쪽.

12) 濮陽市文物管理委員會, 濮陽市博物館·文物隊, 「濮陽西水坡遺址試掘簡報」, 『中原文物』第一期, 鄭州: 河南博物院, 1988年.



<그림 2> M45 평면도<sup>13)</sup>

이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상에서 막대한 통치력을 소유한 존재를 중앙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하였다면, 이와 동일하게 북극을 중앙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한 천체의 五方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일찍이 오래전부터 인류는 천문을 관찰하였고, 천체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변화, 일식과 월식의 주기의 일정한 규칙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연월일과 윤달을 제정하는 동양 고유의 과학적인 역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殷商 갑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癸酉일에 접치기를: 저녁 무렵 일식이 있으면 순조롭다.

癸酉, 貞: 日夕又{有}食, 隹{唯}若. (『合』 33694)

己酉일에 묻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비가 올 것이다. 3월에

己酉: 自今旬雨, 三月. (『合』 12536)

이상 殷商시기 갑골문 용례를 통하여 역법과 천문이 당시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덧붙여 언급하면 일자와 간지를 표시한 문구는 西周

13) 濮陽市文物管理委員會, 濮陽市博物館·文物隊, 「濮陽西水坡遺址試掘簡報」, 『中原文物』第一期, 鄭州: 河南博物院, 1988年, 5쪽, 23쪽.

시기 靑銅器 銘文에 매우 흔히 등장하며, 『文物』 1992년 11기에 발표된 楚 나라 백서 파편의 「……좌평 병, 상성 광……불우이□……[……左坪(平)輻(炳), 相星光……不雨二□……]」<sup>14)</sup>라고 하여 긴 주기 동안 變光하는 平星의 미세한 관측이 가능하였다는 내용은 전국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천문이 관측되었음을 설명한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지상의 중앙 공간에서 사방의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사물과 존재를 조절 통제하고, 여러 계통을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려는 오방 구조와 아울러 천체의 북극 중심의 오방 체계 또한 형성되었고, 북극의 별이 천문의 중앙이 되어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동·서·남·북 네 방위가 설정된 것이다. 『淮南子·天文訓』에는 북두성을 중심으로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15일을 한 절기로 정하고 24절기를 구분하여 일 년 360일을 설명하는 구절 또한 살펴볼 수 있으며,<sup>15)</sup> 사방의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동방7宿 角·亢·氐·房·心·尾·箕, 남방7宿 井·鬼·柳·星·張·翼·軫, 서방7宿 奎·婁·胃·昂·畢·觜·參, 북방7宿 斗·牛·女·虛·危·室·壁으로 묶어 28宿로 통칭하였다.<sup>16)</sup>

즉, 중앙을 중심으로 네 방위를 구분하는 지상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북극 중심으로 네 방위를 구분하는 천체의 구획 구분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응하는 개념으로 방위 구분에 대한 동아시아 사람들 고유의 사유체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史記·天官書』에서 "북두칠성은 이른바 '선, 기, 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다 ……북두는 帝가 타는 수레가 되어 중앙을 운행하면서 사방을 감시하고 통제한다(北斗七星, 所謂'旋、璣、玉衡以齊七政.' ……斗為帝車, 運于中央, 臨制四鄉)."라고 하여 북두칠성을 존엄한 대상 帝와 함께 묶어 오방의 가장 중요 공간으로 북극을 강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표2]에서 확인하였듯이 五獸의 중앙에 黃帝 현원을 대체 배속하여 지상의 지배층이 존재하는 중앙으로부터 사방의 인사 현상을 총괄하고, 자연의 순리와 일상 생활상의 예법, 제도까지 모두 지위 조정하려는 관념을 넘어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주도하려는 천하 중심 사상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何琳儀가 고석한 문장을 참고하였다.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訂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年, 202쪽.

15) "두 개의 維 사이의 각도는 91도 16분 5이다. 북두성의 자루가 하루에 1도씩 운행하여 15일이 하나의 절기가 되고, 이렇게 하여 24절기의 변화가 생긴다(兩維之間, 九十一度十六分度之五而升, 日行一度, 十五日為一節, 以生二十四時之變)." 高誘 注,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40-41쪽.

16) 高誘 注,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36쪽.

총괄하면, 지상의 영토와 천체의 구역을 모두 동, 서, 남, 북, 중으로 구분하여 지상과 천체의 구역 구분 구조를 일치시키고, 그중 지상의 중앙과 천체의 북극 공간을 대응하며 우주의 가장 중심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동쪽의 별의 형태를 龍으로 설정하여 동방을 대표하는 색깔 푸른색과 짝을 이뤄 청룡으로 일컬었고, 서쪽의 별의 형태를 虎로 설정하여 서방을 대표하는 색깔 흰색과 짝을 이뤄 백호로 일컬었다. 남쪽의 별의 형태 또한 鳥로 설정하여 남방을 대표하는 색깔 붉은색과 짝을 이뤄 朱雀으로 일컬었고, 마지막으로 북쪽의 별의 형태를 龜로 설정하여 북방을 대표하는 색깔 검은색과 짝을 이뤄 玄武로 일컬었다. 따라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하늘의 네 방향을 주재 또는 보호하는 상징물로 여겨져 神獸로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중심 대상에 따라 변화된 형태를 보이는 중앙과 다르게 사방의 동물은 비교적 고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 토는 오방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방을 다스리는 독자적인 형태로 항상 중시되어 왔다. 농업사회라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만물의 밀바탕을 이루는 중앙 토에 특수한 지위가 부여되었고, 땅을 연상하는 황색이 중앙의 대표 색깔로 설정되었다.

일찍부터 龍은 지배층 집단의 상징과 길상물로 여겨 五帝에 속하는 현원, 전욱 등의 중요 인물 또한 龍과 관계되어 서술되었다. 예컨대 『大戴禮記·五帝德』에서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현원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신령하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했다. 유년에는 슬기롭고 단정하였고, 장성해서는 마음이 두터우며 재치가 있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총명했다.……황제는 예복인 보불의에 대대와 보상을 입고, 용을 타고, ……(黃帝, 少典之子也, 曰軒轅.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慧齊, 長而敦敏, 成而聰明, ……黃帝黼黻衣, 大帶黼裳, 乘龍辰雲, ……)'라고 하였으며, '전욱은 황제의 손자이고, 창희의 아들로 고양이라고 한다. 지략이 있음이 크고 깊으며, 도리에 밝아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 ……기를 다스려 백성을 가르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다. 용을 타고 사해에 이르렀으며, ……(顓頊, 黃帝之孫, 昌意之子也, 曰高陽. 洪淵以有謀, 疏通而知事; ……治氣以教民, 絜誠以祭祀. 乘龍而至四海, ……)'라고 하여 龍을 특별히 여겨 고대시기 중요 대상과 함께 밀접히 관계되어 서술되었다.

다시 말하면,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龍을 섬긴 고대인들의 인식이 투영되어 秦漢시기 이후 지배층의 의지에 의해 龍을 그들이 속한 중앙에 배속한

동시에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과 함께 쓰여 黃龍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동방-창룡(蒼龍), 남방-주조(朱鳥), 중앙-황룡(黃龍), 서방-백호(白虎), 북방-현무(玄武)라는 각각의 대표 동물이 방위에 상징적 형태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 문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배속된 五獸의 형태를 검토하고, 다섯 동물의 선정된 과정과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五獸의 기원과 구성이 어떠한 바탕에 의거했는지 고민해 보았다.

일찍이 영토적 공간을 동·서·남·북 사방의 방위를 구분하였고, 이를 조절 통제하는 역할의 중앙을 설정하여 동·서·남·북·중이라는 동양 고유의 오방 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배층이 거쳐하는 공간 중앙으로부터 사방을 향한 중요 의식 행위가 거행되었으며 점차 체계적으로 다른 계통과 결합 관리되며 여러 분야에서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는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五方に 배속된 五獸 또한 이에 속하는 산물이며, 대부분의 문헌에서 동-청룡, 남-주작, 중앙-황룡, 서-백호, 북-현무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상의 五方이라는 공간 구조와 천체의 공간 구조를 서로 대응시켜 동양의 천문 방위 구조 체계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지배층 공간의 중앙을 중심으로 통치권 구역의 영토를 다섯 형태로 분류하였듯이 천체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중앙으로 삼아 구심점을 이루고 동·남·서·북을 각각 7宿로 구분하여 28宿를 형성하며 네 방위의 神獸를 설정하여 각각의 속하는 방위를 주재 또는 중앙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秦漢시기 이후 지배층 집단의 상서로운 동물로 여긴 龍을 자신들의 상징성을 담아 중앙에 배속하였고,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과 함께 쓰여 黃龍으로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동방-蒼龍, 남방-朱鳥, 중앙-黃龍, 서방-白虎, 북방-玄武라는 각각의 대표 동물이 방위에 배속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사유의 결과가 탄생되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일찍부터 오방이라는 영토적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중앙이라는 공간에서 만사만물을 지배 통제하려는 인식이 근본을 이뤘

고, 이를 중심으로 자연계의 모든 공간의 현상을 주도하려는 의식 체계에서 각 방위를 대표하는 五獸의 형태가 발생되고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메모1

홍익재단

## 메모2

홍익재단

## 메모3

홍익재단

## 메모4

홍익재단